



**[미분양 6만가구 시대]**  
빈집 많은 지방 집값 폭  
임대전환 등 안간힘  
03



Economy

코스피	2271.54	코스닥	789.82
	(-54.59)		(-28.40)
금리 (국고채 3년)	2.12	환율 (원-달러)	1120.00
	(0.00)		(+5.50) (2일)

# 여론믿고 압색·영장 남발...잇단 기각에 檢 신뢰 추락

(압수수색)



업무 복귀한 文대통령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흔들리는 검찰권위

(上) 사라진 '불구속 원칙'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광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는 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들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브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하려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 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2면에 계속)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350억 혈세 쓰고도 도움 안되는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시스템 경험자 70% 불만족  
지원 선정돼도 어려워 포기  
휴게시판에 시스템 폐지 호소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박근혜 정부 시절 350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오픈 1년여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예술인 등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해 세금 낭비를 막아보겠다고 야심차게 개발해 오픈한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불만 폭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만든 'e나라도움'이 사용자 편의성은 무시한 채 1년 남짓 운영되다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관련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불만족'을, 특히

보조금을 받아 각종 문화예술활동 등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는 e나라도움을 폐지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탈바꿈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

어도 시스템 사용이 어렵고 행정 업무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아예 청와대가 나서 관련 시스템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차례 가량 의견수렴을 거치고, 1차 시스템 수정 작업에 이어 현재 2차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 사우디 원전 예비사업자에 韓 등 5개국 선정

한전, 최종사업자 선정 올인  
美·中·러·佛과 경쟁 예고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건설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예비사업자로 선정, 향후 사업조건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1400MW급 2기 규모의 사우디 신규 원전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을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경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건설비 등이 경쟁력 대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앞세워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경제·사회 개혁 계획 하에 현재 90%에 이르는 석유 의존도를 약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사우디와 인접한 UAE에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를 수출한 바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전이 이번 사우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전이 사우디 신규 원전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UAE 원전 이후 9년 만에 해외원전사업을 수주하는 쾌거이자, 중동지역 원전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세계 경제 침체에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

삼성증권 짐 로저스 초청 강연

韓, 北 개방 통해 수혜 예상  
韓 자본+北 자원 '큰 시너지'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2일 “세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경제 개방이 어느정도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8면)

이날 삼성증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가진 초청 강연회에서 짐 로저스는 한국이 북한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 위기를 피하고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짐 로저스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손꼽힌다. '월가의 신화'로도 불리고 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는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제일 힘든 시간



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투자 전략 세미나'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왼쪽)과 짐 로저스(오른쪽) 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증권

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대차대조표만 봐도 (부채가) 10년 동안 500% 이상 커졌고, 2008년과 달리 중국 조차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선 금

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한국의 관광업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통일비용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북이 절감하는 군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동독의 경우 서독과 통일됐을 때 주변에 자금을 쏟아부어줄 부유한 국가가 없었다. 반면 북한은 중국·한국·러시아와 같은 이웃국가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방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자본과 경영 능력에 북한의 잘 교육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로저스 회장의 진단이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1면 '흔들리는 검찰권위...'서 계속

### '검경 갈등구도' 피하러 권익보호 뒷전 우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덧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 '어른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영장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이범중 기자 joker@



과거 엄정한 잣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이 최근 여론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과의 갈등 구도 역시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과 고검 전경. /이범중 기자

>> 1면 '짐 로저스 초청 강연...'서 계속

### "日 제외, 北·러·韓 북한의 개방 원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개방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위스에서 생활해서 완전한 북한인이라기보다 외국인 성향이 있는 듯 하다"며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왜 후계자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부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을 빼고 북한, 러시아, 한국 모두 북한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3만 명의 주한 미군이 불확실성 요소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의)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 청와대 게시판 달구는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

# "직원 1만명 死地로... 4천억 주식 휴지될라"

(가속)

#### 국토부 '항공법 위반' 처분 연기 청문절차 거쳐 최종 결정기로

#### 靑 게시판에 면허 취소 반대글도 "직원은 갑질의 최고피해자일 뿐"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뒤로 미뤄진 가운데 취소 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2~3개월 뒤로 연기됐다. 진에어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진에어의 이런 불법을 방지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인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진에어 항공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진에어는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일 진에어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익명의 게시자는 "진에어 직원들은 10년 넘게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 직원들"이라며 "지금까지 조씨 일가 갑질의 최고 피해자이며 오직 묵묵히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진 직원들의 회사"라고 토로했다.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2만5000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원자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취소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두고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 가장 큰 우려되는 것은 고용과 항공서비스 관련 문제들"이라며 "면허 취소 여부가 청문회 결정에 달린 만큼 청문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코스닥, 6개월 만에 800선 붕괴... 美中 무역전쟁 우려

#### 코스피는 2270대로 하락 14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 투자심리 회복 어려울 듯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증시를 뒤흔쳤다.

코스피지수는 2일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확대되며 급락해 1년여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울 들어 처음으로 8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59포인트(2.35%) 하락한 2271.54로 거래를 마쳤다. 작년 5월 10일(2270.12) 이후 최저 수준이다. 2300선이 무너진 건 14개월 만이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35억원, 1155억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4005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관련기사 8면>

코스닥지수도 800선을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3.47% 급락한 789.32에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지수가 800선을 밀린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바닥으로 여겨졌던 8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에 주식시장이 파황게 질렸다. 2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35% 내린 2271.54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3.47% 급락한 789.82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한 투자심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주식시장 급락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욱이 선물지수까지 빠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주 주말에 반동이 나오면서 코스닥지

수는 800선을 바닥으로 봤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와 중국 증시 하락에 더 크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우려에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상해지수는 지난 달 29일 장 중 2782.38포인트까지 낮아지며 연 중 최저점을 형성했고, 현재시간에도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한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홍 팀장은 "지금은 투자자들이 팔

았다가 사지는 심리"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한 증시 약세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목적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 후퇴이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의무가 명시되어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공정 규제를 완화시키려 한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은 "대중 압박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핵심 목적은 단순한 무역적자 규모 축소가 아닌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후퇴"라면서 "미국의 공격대상이 단순히 중국의 경제 손실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략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착수

주민의견 수렴 충실히 수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해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역 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타당성 재조사 부문 용역에서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이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면 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주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전 타당성 연구에 참여한 업체와 인력은 배제했다. 또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분야 연구기관은 타당성 재조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행정정책관은 "향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KB국민銀, 10년 만에 印尼 재진출

부코핀 은행 신주인수계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부코핀 은행(Bank Bukopin)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현지 금융당국(OJK)으로부터 신주인수 적격기관으로 승인받았다.

부코핀 은행은 이번달 12일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 대상으로 교부 후 2주간 권리행사기간을 거쳐 되며, KB국민은행은 이번달 26일 최종 지분을 확정시 최대 22%의 지분 취득 여부가 결정돼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기준 14위의 중형은행(BUKU 3)으로 전국적으로 총 322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고객 및 중소기업(SME)고객 위주의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의 신주인수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KB국민은행은 2008년 인도네시아 BII은행(현 메이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매각 이후 10년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빈집많은 전북·경남·충남 집값 뚝... 임대전환 등 안간힘

## 삼미분양 6만가구 시대 <中> 미분양과 집값

지방 미분양 5만가구... 1.6% 증가 임대전환·할부 등 공급방식 전환 '공급 과잉' 등 근본적 대책 미비

'빈집이 집값을 좌우한다'. 미분양이 늘어난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빈 집이 늘어 연쇄 하락 추세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해 '빈 집 탈기(미분양 가구의 분양)'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 미분양과 집값은 반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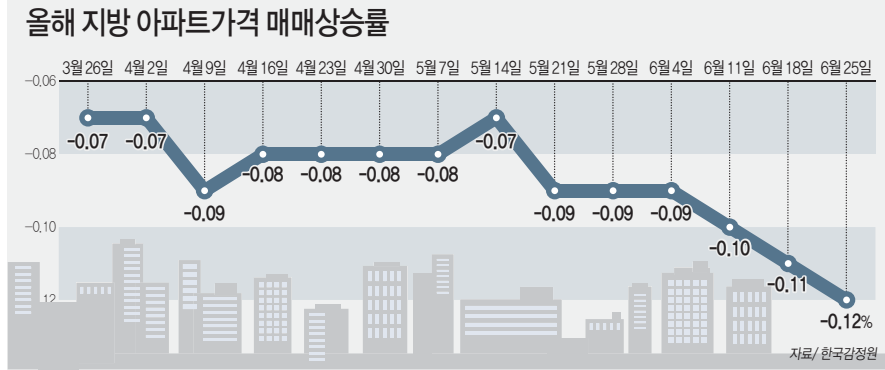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3가구로 전월 대비 1.6%(781가구) 늘었다. 이 중 전북이 1891가구로 전월 대비 24.5%(372가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남이 9.0%(1231가구), 대전 5.3%(45가구), 충북 3.2%(139가구), 제주 0.6%(8가구)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였

다. 준공후 미분양은 1만257가구로 전월보다 0.7%(69가구)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업계에선 빈 집 증가가 집값하락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6월 들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엔 -0.09%, 둘째 주 -0.10%, 셋째 주 -0.11%, 넷째 주엔 -0.12%로 매주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전북의 월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0.27%)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0.05%)로 전환해 5월엔 -0.10%, 6월엔 -0.07%를 기록했다. 경남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폭이 커



지다가 지난 5월엔 -0.49%, 6월엔 -0.46%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충남도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 5월엔 -0.20%까지 확대됐다.

1년 넘게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달 주간 동향을 보면 첫째 주엔 -0.05%였다가 마지막 주엔 -0.24%까지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4537가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2271가구로, 2015년 8월 이후 공급된 아파트(분양완료 제외) 1만4739가구의 15.4% 수준이다.

### ◆ 임대에 할부까지...근본 대책 뭘까?

이런 상황에 일부 지역에서 임대 전환, 할부 분양, 할인 분양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의 경우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 공급 방식을 임대로 대폭 전환했다. 동아건설(970가구)이 지난달부터 임대로 공급 방식을 바꿨고 청주 동남지구의 원건설(910가구), 대성건설(1507가구) 등도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LH는 최근 충북혁신도시에 공급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를 할부 분양하기로 했다. 12월 입주 예정인 B2블록 잔여 900가구를 대상으로 중도금(전체 공급가의

72%)을 5년 뒤 무이자로 받는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 등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오히려 3곳이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원주의 경우 지난 5월 미분양 주택이 1638가구에 달하지만 올해와 내년 원주기업 도시 입주물량을 8260가구 규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규제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적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2012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미분양을 줄인 바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미입주 사태, 악성 미분양 등을 막기 위해 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수출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립뉴스

## "5개국 모두 통과... 국가간 제휴 최대변수"

### 산업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사우디 원전건설 예비사업자 선정 백운규 "범정부적 수주지원 총력" 민간 합동 지원센터 설치 등 대응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건설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원전 수주의 청신호가 켜졌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과의 추가 경쟁이 남은 만큼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합동 '사우디원전지원센터' 설치 등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관련 기업과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한 민간 합동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사우디 원전 예비사업자 선정에 따른 향후 수주 전략과 정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우디 원자력재생 에너지원(K.A.CARE)은 지난달 30일 한전에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

다. 당초 예비사업자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수주전에 뛰어난 5개국 모두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백 장관은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기술, 재원, 시공 등 민간 역량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최종 수주까지 격일로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주요 계기시에는 그에 맞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한 범 정부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 방안 마련, 자동차 등 사우디 관심분야 중심 산업협력 방안 구체화, 스마트(SMART) 협력 등 원전 수주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5개국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국내에 원전을 지으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UAE 원전 수주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하는 등 오랜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원자로 AP1000을 일부 도입하기는 했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고려하면 둘의 협력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도 각자 다른 원전 노형을 채택하고 있어 제휴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백 장관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는 했지만, 우리뿐 아니라 입찰을 희망한 5개국 모두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사우디 원전 사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국내 원전산업 해외 진출의 '제2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민간 합동 사우디원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당시 운영한 '워룸'(War Room)을 모델로 사우디 요구사항 분석, 입찰 제안서 작성, 양국 업계 간 실무협의 등을 위한 종합 실무지원기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번 민간 합동 사우디원전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정부와 원전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총역량을 집중하고 사우디 원전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e나라도움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 1면 '350억 혈세 쓰고...'서 계속

지난달 말에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집행 실태 실시간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e나라도움을 오픈한 뒤 7월 전면 개편한 바 있다.

보조금 사업 공모→신청→자격심사→사업자선정→집행관리→실시간이체→사업자 보조금 수령 등이 모두 e나라도움을 통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픈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한 기관의 지원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A씨는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안중에도 없고, 지원기관 조차 관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괴물같은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건비 수령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용자는 "시스템 에러는 수시로 발생해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보조금 사업 기관의 담당자들도 시스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문체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지난해 7월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1명 가운데 72.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사업 포기를 고민했다는 답변도 전체의 57.5%로 절반이 넘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대규모 혈세를 쓴 국가 시스템이 사용자 환경은 무시한채 속속으로 만들어져 결국 1년 만에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립뉴스



# 앙증맞은 외모에 폭발적인 퍼포먼스... 감탄사 절로



## BMW '뉴 미니 JCW 컨트리맨'

코너링부터 가속·주행능력 '일품' 생활 속 레이싱 즐기기 안성맞춤

미니(MINI) 중의 MINI라 일컬어지는 MINI JCW(John Cooper Works: 존 쿠퍼 워크스)를 지난달 29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만났다.

미니 JCW는 기존 미니 차량에 몬테카를로 랠리의 우승을 이끈 레이싱 선구자 '존 쿠퍼'의 튜닝 프로그램이 추가돼 더욱 강력한 성능을 선보이는 MINI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다. 특히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를 갖추고 있지만 도로위에서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미니 JCW 컨트리맨 서킷 거침없는 질주 이날 시승한 모델은 뉴 미니 JCW 컨트리맨이다. 운전석에 앉아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힘이 느껴졌다. 코너링 또한 일품이고 가속과 주행 능력은 서킷을 돌 때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뛰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을 주행하고 있는 미니 JCW 컨트리맨.

어났다.

뉴 미니 JCW 컨트리맨은 MINI의 전체 라인업 중 가장 크고 강력하다. 2.0L 4기통 JCW 트윈파워 터보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성능을 내며 ALL4 사륜구동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안전최고속도는 234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6.5초가 걸린다. 그야말로 퍼포먼스 측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갖추고 있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실감났다.

인제스피디움은 무척이나 리드미컬한 서킷이다. 곡선주로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트랙 곳곳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경사진 도로가 많다. 차량의 하중을 완벽하게 옮겨야만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이런 시험장에서 미니 JCW 컨트리맨은 수준급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니 JCW 컨트리맨은 수준급의 가속력과 함께 기민한 제동성능과 접지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을 계속할 수 있었

다.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핸들링은 유연하게 반응했다. 작은 차체 덕분인지 회전반경도 짧고 간결했다.

미니 JCW 컨트리맨으로 서킷을 주행한 결과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운전자들의 질주본능을 자극하기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 ◆존 쿠퍼의 손자까지 3대에 걸친 인연

미니는 작은 외모와 달리 강력한 심장을 품고 있다. 미니는 1960년대 열린 몬테카를로 랠리에서는 우승을 달성했다. 랠리뿐만 아니라 온로드 레이싱에서도 수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에 힘과 밸런스를 담아낸 주인공은 존 쿠퍼다. 그는 1960년대 포퓰러(1F 1)에 레이서와 머신 제작자로 참여하며 미니를 당시 동급 최강의 자동차로 변신시킨 인물이다.

존 쿠퍼는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미니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미니 JCW는 클럽맨과 컨트리맨을 포함해 쿠퍼와 해치백 모델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날 인제 스피디움을 찾은 존 쿠퍼의

손자이자 미니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찰리 쿠퍼를 만났다.

찰리 쿠퍼는 "미니 브랜드는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히 영국차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있는 미니가 BMW의 기술력을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주행성을 갖춘 제품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제품과 훌륭한 스토리의 밸런스가 잘 맞는 자동차 브랜드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JCW의 엔진 최고 출력이 메르세데스-AMG나 BMW M시리즈 등 경쟁 모델보다 수치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미니 JCW는 출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니 JCW가 그 동안 여러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던 것은 출력이 아닌 새시나 차량의 경량화 등 세부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JCW 라인업 중 가장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즐겨 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컨트리맨을 주로 이용한다"며 "도심에서는 3도어 해치백을 즐겨탄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020세대 맞춤형 '갤럭시A8 스타' 단독 출시

### SK텔레콤

오늘부터 5일까지 예약판매

SK텔레콤은 6.3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A8 스타(Star)'를 6일 단독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식 출시에 앞서 3일부터 5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공식지원금은 예약판매가 시작되는 3일 공식은 라인업 'T월드다이렉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8 스타는 ▲6.3인치 대화면 ▲18.5대 9 비율 베젤리스 디자인 ▲FH D 화질 등 동영상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배터리도 3700mAh 대 용량을 탑재했다.

사진 촬영 기능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급 카메라도 탑재했다. 후면 카메라는 2400만·1600만 듀얼 렌즈 장착, 아웃포커스 기능 등을 지원한다. 전면 카메라는 국내 출시 스마트폰 최초로 2400만 화소를 지원한다. 또 피부톤, 연령 등을 자동 인식해 사진을 보정해주고 조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됐다.

갤럭시 A8 스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AKG 이어폰이 기본 제공된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1GB 데이터 쿠폰 해



모델이 SK텔레콤의 '갤럭시 A8 스타' 단독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택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스마트폰 보호필름 ▲카카오프렌즈 충전패드 가운데 원하는 1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A8 스타 출시를 기념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수동 카페 '어반소스'에서 'A8 스타 라운지'를 운영한다.

A8 스타 라운지에서는 '별로그침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25일에는 방송인 김숙, 송은이, 가수 헤이즈 등이 청춘의 꿈을 주제로 관객과 교감한다. 26일에는 청춘의 사랑을 주제로 가수 성시경, 소란, 헤이즈, 작사가 김이나 등이 관객과 소통한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9일부터 31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 절박한 케이블TV업계

# “이통사 과다경품 제재수단 필요”

자본력으로 유료방송시장 혼란 야기 서비스 같은 근본적 경쟁 감소할 것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에 제재를 걸고 나섰다. 자본력을 앞세운 이동통신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의 서비스·품질 경쟁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경품 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경쟁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경품 지급이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신업계의 관행이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지만, 정작 유요한 제재수단 마련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며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내)은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결합상품 가입 건수 1675만 건 가운데 이동전화다.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불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대해서도 협회는 "기존 이용자나 장기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과정을 거치고 12월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경품의 가격을 규정할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 기준을 초고속인터넷은 15만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은 3만원으로 서비스 별로 산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 막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현금경품 금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돼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경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진에어,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 5일까지 온라인 서류접수 진행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에 나선다.

진에어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남녀 신입 객실승무원으로, 총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최소 학력 및 신장의 제한은 없으며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채용 전형에서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후 1·2차 면접, 건강 진단 및 체력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전형 절차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8월말 경에 입사하여 객실 안전 훈련 및 서비스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11월부터 업무에 투입 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조선시대 미술작 '디지털 병풍'에 담았다

DDP서 '장승업×취화선展' 개최 LG전자, 디지털 사이니지 등 설치

LG전자가 6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조선 최후의 거장, 장승업×취화선전(展)'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슈퍼 울트라 HDTV를 설치해 조선시대 천재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조선 최후의 거장展'은 2002년 개봉한 영화 '취화선' 속 인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천재 화가 장승업과 제자 조석진, 안중식의 대표작 56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32:9 화면 비율을 적용한 88인치 울트라 스트레치 사이니지 8장을 나란히 세로로 배치해 높이 2m, 폭 9m의 웅장한 디지털 병풍을 완성했다. UHD(3840×1080) 해상도를 구현하는 8개 화면은 각각 장승업의 산수도와 화조도, 조석진의 고사인물도, 안중식의 산수도 이미지를 표시한다. 시야각 성능이 뛰어나서 관람객이 어느 위치든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울트라 스트레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조선 최후의 거장, 장승업×취화선展'을 찾은 관람객들이 LG 전자 울트라 스트레치 사이니지 8장으로 조성된 디지털병풍에서 장승업의 화조도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치 사이니지는 건물 기둥 등에 세로나 가로로 길게 설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다. 공항·지하철역을 포함해 각지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신병도 기자 catchrod@



# 현대차, 올 들어 첫 월간 40만대 판매 돌파

완성차 수출 '웃고' 내수 '울고'  
현대차, 전년비 15.4% 증가  
중국·신흥시장서 판매 호조  
한국지엠 '정상화' 궤도 올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량 증가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조업 일수 축소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했지만 중국과 신흥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의 고른 판매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량이 41만4222대(국내 5만9494대, 해외 35만4728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8% 감소, 해외 판매는 19.4%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판매 40만대를 돌파한 실적이다.

6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감소는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비롯한 근무일수 감소의 영향이 주효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그랜저(하이브리드 2271대 포함)가 8945대 판매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

었으며 아반떼(5928대), 쏘나타(하이브리드 304대 포함)가 5245대 팔리는 등 총 2만1954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증가를 기록해 하반기 판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기아차의 지난달 판매량 증가는 수출량 증가가 주효했다. 기아차는 6월 판매량이 국내 4만6000대, 해외 20만5216대로 총 25만1216대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 내수 판매가 2.2% 줄었지만, 수출이 7.8% 늘면서 전체 판매가 5.9% 증가했다.

국내판매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비롯해 신형 K9과 K3 등 신모델 판매가 선전했으나 근무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반면, 해외판매는 중국과 신흥시장의 고른 판매 증가, 해외 인기 모델의 판매 호조에 전년 대비 7.8% 늘어나 글로벌 전체 판매는 5.9% 증가를 달성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영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6월 한 달 동안 총 4만654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4만3693대) 6.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내수시장에서는 9529대를 판매해 연중 최대 월 판매 기록을 세웠다. 내수 판매는 전월 대비 24.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16.8% 감소했다. 수출은 3만7017대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최근 출시한 더 뉴 스파크는 판매 첫 달 3850대가 판매되며 전월 대비 50.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고, 전기차 볼트EV는 162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4056%나 증가했다. 지난 5월 내수시장에서 1014대가 판매된 볼트 EV는 두 달 연속 1000대 이상 판매 기록을 이어가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선점했다.

한국지엠 야심작 이쿼닉스는 초기 선적 물량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385대가 고객 인도를 완료하며 국내 SUV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6월 내수 7120대, 수출 1만4801대 등 총 2만1921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대비(2만6815대)

18.3% 감소한 수치다. 내수는 지난해보다 20.9%, 수출은 16.9%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 QM6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 1513대 판매되며 출시 이래 월평균 약 1500대의 판매 실적을 이어갔다. SM6는 지난달 2049대가 판매되며 상품성을 강화한 2019년형 모델 출시 후 네달 연속 월 20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했다.

르노 브랜드 모델인 클리오의 지난달 549대가 출고됐다. 고급 사양들을 대거 적용한 최고급 인텐스 트림의 판매가 90% 가까이 차지해 기존 소형차와 차별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168대 판매로 연간 누적 판매 100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9684대, 수출 2894대를 포함 총 1만 2578대를 판매했다. 이 같은 실적은 내수에서 티볼리, 렉스턴 브랜드 등 주력모델들의 선전과 수출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중 내수 월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에 그쳤다. 무엇보다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가 지난 달 역대 월 최대 판매실적을 또 다시 갱신한 데 힘입어 두 달 연속 9000대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 산업 단신 |



종합숙박 앱 여기어때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 출시와 이를 기념한 반값 이벤트'를 알리는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여기어때 워터파크·수상 레저 '액티비티 반값' 행사

종합숙박 앱 서비스 여기어때가 액티비티 예약 시작을 기념해 전국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수상레저, 이색카페 이용권 반값 행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8일까지 진행되는 반값 행사에는 우리나라 대표 워터파크로 꼽히는 웅진플레이도시와 롯데김해워터파크, 블루캐니언, 설악워터피아, 일산원마운트, 피크 아일랜드, 천안오션파크, 도고파라다이스, 리솜해브나인, 블루원, 오션베이, 장암아일랜드 캐슬이 포함된다. 이어 서울랜드와 코엑스 아쿠아리움, 일산 아쿠아플라넷 등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30여 개 상품이 정가 대비 반값에 등장한다.

한편, 여기어때는 지난 28일 종합숙박 앱 중 처음으로 600여 개 국내 액티비티의 실시간 예약을 시작했다. 기존 국내 최대 규모의 숙박시설 예약과 함께 워터파크, 테마파크와 같은 대형시설은 물론 경비행기, 제트보트, 패러글라이딩, 썰라인, 열기구 등 액티비티 예약이 동시에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쉐보레 앰버서더 창단식이 지난 1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됐다. /쉐보레

### 쉐보레 '앰버서더' '고객 시승 캠페인' 시승차 100대 투입

쉐보레가 이달부터 총 100대의 시승차가 투입되는 대규모 고객 시승캠페인 '쉐보레 앰버서더'를 운영한다.

2일 쉐보레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500여명의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선발된 일반 고객 100명과 쉐보레 차량을 소유한 고객 100명으로 출범한다. 7월부터 두 달간 이쿼닉스와 볼트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등 쉐보레 대표 제품 시승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쉐보레 앰버서더 당첨 고객은 '스타일&라이프 앰버서더'와 '드라이빙&세이프티 앰버서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에서 차량 시승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하는 포토데이, 양양 서피치에서 열리는 서핑데이, 쉐보레 차량의 퍼포먼스를 체험하는 트랙데이, 중미산 천문대에서 천체 관측을 하는 스타나이트 등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한국타이어

### 신규 계열사 모델솔루션 우병일 대표이사 선임

한국타이어의 신규 계열회사인 모델솔루션이 글로벌 최첨단 디지털 프로토타입 솔루션 기업으로도 약하기 위해 우병일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장(사진)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우병일 대표이사는 1988년 한국타이어에 공채로 입사해 R&D센터, 글로벌 마케팅과 세일즈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OE 부문장 및 중국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글로벌 OE 부문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에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및 일본 대표 3대 완성차, 2015년에는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글로벌 완성차 45개 브랜드에 약 310여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일조했다.

또 중국지역본부장 재임 첫해인 2017년에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과 글로벌트럭·버스용 타이어(TBR) 공급 유통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 타이어 판매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우병일 대표이사는 "그간 경험해온 글로벌 B2B 전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모델솔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그리고 창의적 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SK인천석화, 협력사 '안전·상생' 팔 걷어

## SK이노의 안전경영 협력사에 적용 무재해 포상·작업중지 권한 부여

SK인천석유화학은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경영원칙에 따라 협력사와 안전경영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의 최우선 경영철학인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선 협력사의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 무재해 포상 및 작업 중지권 실행을 보장한다. /SK이노베이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다양한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엔씨소프트 시각특수효과 기업에 220억 투자... "애니·게임 시너지"

엔씨소프트는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에 220억원을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는 2009년 설립한 VFX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VFX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설립 이후 최근까지 봉준호 감독의 '옥자', '설국열차',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올드보이' 등 영화 180여편의 VFX 제작 파트너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테마파크 특



수영상, 가상현실(VR)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확보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포스와 엔씨 지식재산권(IP)의 애니메이션화, 최신 디지털 영상 제작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

진할 계획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대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형 포스 대표는 "양사가 IP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만큼 이번 협력으로 양사가 종합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 기업·부산銀, '주52시간' 조기도입 타 은행은 특수직군 범위싸고 난항

(IT·해외투자 등)

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 적용범위 선정에 노사조율 난색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타 산업군에 비해 은행권은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융업의 경우 특례업종외의 규정으로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은행권의 조속한 움직임을 독려하면서 조기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직군별 조기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은행은 단 두 곳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특수직군(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의 적용 범위 선정에 두고 노사와의 의견 조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중 내달부

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은행은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뿐이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 '조기퇴근'과 오전·오후 2시간씩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는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또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전반기부터 정부는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부추기고 있지만, 은행권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

부 장관이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종용하면서 은행들은 조기 도입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껴왔다.

당초 일부 은행들은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며 올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과정에서 특수직군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자조합은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이 부족한 특수 직군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이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군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 자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고심을 하고 있다. 특수직군의 범위 선정을 두고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서 영업직원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하는 특수 직군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입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15일까지 4차례의 대표단 교섭을 포함해 총 28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측은 특수범위로 인사와 예산, 회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산개발이 포함되는 IT, 트레이딩, 해외투자, 여신심사 직군과 공항점포 등 특수점포 인력, 그리고 운전기사, 청원경찰, 콜센터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수 직군의 범위를 두고 은행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 입단협에 넣은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군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52시간 근무제를 선별적으로 직군에 적용하자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 현지 금융전문지 '최우수 은행' 1위 선정

KEB하나은행은인도네시아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이 현지의 금융전문지인 '인베스터(Investor)지'로부터 최우수 은행(Best Bank) 1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인베스터지가 주최한 '2018 최우수 은행 시상식(2018 Best Bank Awards)'에서 'Buku 3' 그룹에 속한 총 21개의 은행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및 2017년에도 인베스터지로부터 최우수 은행(Best Bank)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순위 없이 상위 3개의 은행을 선정하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1위, 2위, 3위로 구분해 진행된 시상식에서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1위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총 115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를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Buku 1'(소형은행)에서 'Buku 4'(대형은행)까지 총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



이화수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장(사진 왼쪽)이 시상자인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파우지 이치산(Fauzi Ichsan)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말레이시아계 은행인 'Maybank', 싱가포르계 은행인 'Bank OCBC NISP' 등과 함께 중대형은행인 'Buku 3' 그룹에 속해 있다.

인베스터지는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이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의 총 11개 항목에서 모두 뛰어난 역량이 인정되어 최우수 은행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 신한은행-케이에프코리아

### 국내외 부동산 투자 MOU

신한은행은 국내 및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에프코리아(Knight Frank Kore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케이에프코리아와 함께 ▲해외부동산 투자컨설팅 ▲해외부동산 투자세미나 개최 지원 ▲외국인투자자 대상 국내부동산 매입 컨설팅 등 양사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외환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에프코리아는 나이트프랭크 글로벌 네트워크(Knight Frank Global Network)의 한국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고객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이희성 케이에프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신한은행

수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 기관의 해외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 기축법 일몰...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 우려

금융위, 금융협 등과 대응방안 논의 "선제·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필요"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축법)이 실효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기축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축법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축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돼 4번째 실효기를 맞게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축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즉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은행권만 포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축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다만 기축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축법을 통한 선

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축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기축법은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기축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 "올 하반기 '디지털 KB' 추진 적기"

허인 KB국민은행장 생존전략 강조

허인 KB국민은행장(사진)은 2일 "이번 하반기는 '디지털 KB'를 향한 추진력 강화 방안을 보다 깊이 고민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이날 정기조회사를 통해 "KB국민은행도 디지털 금융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사적 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 때"라며 "KB가 고객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디지털 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은 절체절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 전체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KB의 디지털"을 제대로 구현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확보와 디지털 인재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부 육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외부의 우수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에 맞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직원 중심으로 공간을 전면 재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꼽았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허 행장은 "글로벌은 런던 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으로 '런던-홍콩-북경-동경-뉴욕'을 잇는 KB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 중에 있어 하반기와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환전없이 간편하게  
해외주식투자하자!  
신한금융투자  
'So Cool~ So Easy~' 이벤트

**신한금융투자  
해외통합증거금 신청자  
'소 쿨! 소 이지!'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 신청자를 위한 '소 쿨! 소 이지!(So Cool! So Easy!)' 이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별도의 환전 없이 보유 중인 원화와 외화(USD·JPY·HKD) 뿐 아니라 당일 매도한 국내주식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후 해당 통화로의 환전은 매매일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이벤트는 편리한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서비스 신청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후 해외주식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다이슨 선풍기(70만원 상당)를 3명에게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HI ELS 1종 공모  
- 기초자산: 홍콩지수, 유망지수  
- 모집기간: 7월 2일~8일 오후 1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총 50억 규모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31호'는 홍콩항셍(HSCEI) 지수,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영지 기자

**미래에셋대우  
ELS 1000억 발행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2일 2018년 상반기 글로벌 ELS 1000억 발행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가 발행하는 글로벌 ELS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적 청약 금액 기준으로 골드바와 상품권을 제공한다.

누적 청약 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골드바 1돈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골드바 3돈을 지급하며 10억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골드바 10돈을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무역전쟁, 베어마켓 불러… 세계경제 빨간불”**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

**삼성증권 '짐 로저스 초청 세미나'**

위기 겪은 2008년보다 부채 많아  
한국, 향후 투자 활발한 국가될 것  
달러화 보단 농수산물·중국 투자

“지난 70~80년과 비교해 가장 나쁜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세계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76)가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뇌관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난 부채다. 다만 한국은 남북경협을 기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익사이팅(exciting)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 초청으로 방한한 로저스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경제 및 대북 경제협력 전망'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몇 년 내에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베어마켓 시작될 것”

비관적 전망의 근거는 무역전쟁이다. 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승자가 나온 적이 없을 뿐더러 금리인상과 맞물려 전 세계 증시가 베어마켓(bear market·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짐 로저스는 “도널드 트럼프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강한 무역전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적인 투자가자 로저스홀딩스의 회장인 짐 로저스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실망시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그는 몇 년 이내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다. 특히 이번에 닥칠 위기는 70~80년 간 겪어온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봤다. 전 세계 부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는 “부채로 위기를 겪었던 2008년보다 현재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면서 “많은 나라가 금리인상으로 어려

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된다”면서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다”고 비관론을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향후 10~20년 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가 활발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짐 로저스는 “개방 후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망이긴 한

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80년 간 폐쇄된 상태였던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보고싶을 것”이라며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짐 로저스는 “아직 확실한 수혜 기업을 찾지 못했다”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 투자의 기회는 있다. 또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는 자산분배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 그는 달러화보다는 농수산물, 중국 투자를 유망하게 봤다. 하지만 본인이 잘 모른다면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짐 로저스는 “요즘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오랜기간 농산물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러시아 농산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업분야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만큼 관련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된다”며 “투자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산배분 전략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metrosecu.co.kr

**올 여름 '재건축 분양대전'... 서초·반포·광명 등 '눈길'**

7~8월 전국에 8847가구 분양  
현대·삼성·대우 등 3파전 돌입

올해 들어 부동산규제 및 지방선거 등으로 연기됐던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우성1', 반포 삼호가든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경기도 광명 주공4차를 재건축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 최대 관심대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 8월 전

국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13개 단지, 8847가구다. 이 중 24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 단지 4402가구(일반861가구) ▲경기 4개 단지 2817가구(일반834가구) ▲인천 1개 단지 244가구(일반102가구) ▲강원 1개 단지 567가구(일반388가구) ▲경남 1개 단지 817가구(일반275가구) 등이다.

이번 재건축 분양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등이 3파전으로 진행돼 더욱 흥미롭다.

우선 대우건설은 이달 철산주공4 재건축 단지인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05㎡, 798가구 중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7호선 철산역이 도보 5분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가깝다.

삼성물산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우성1'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단지인 인근에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835가구 중 50~132㎡ 21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헤림건설은 7월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5구역주택을 재건축하는 '약사뉴타운 모아엘가 센트럴' 59~84㎡, 567가구 중 38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양은 7월 성남시 중원구 금광3구역을 재건축 하는 '성남 금광3구역 한양수지' 40~74㎡, 711가구 중 2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8호선 단대오거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우건설 김형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우건설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직원과 식사데이트'**

대우건설은 김형 사장이 7~8월 동안 6회에 걸쳐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CEO(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데이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사장은 본사의 본부·실별 대리·사원급 젊은 직원과 구내 식당 및 인근 레스토랑에서 런치데이트, 치맥데이트를 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과의 소통이 먼저 다가가겠

다"라고 밝힌 뒤 이번 행사를 직접 제안했다.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바라는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앞으로 현장과 본사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달 울산 S-Oil RUC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H투자증권, 연 2.5% 발행어음 판매 시작**

목돈 마련이 쉽도록... 수익률 유리  
적립형·약정형 등 라인업 다양화

NH투자증권은 자산부채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 발행어음 수익률을 확정하고, 2일부터 전국 지점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발행어음을 시장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 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쉽도록 매월 일정금액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상품인 NH QV 적립형 발행어음의 경우는 연 2.50%(세전)로 수익률이 유리하다.

또한 약정형 발행어음의 1년 만기 수익률은 연 2.3%(세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 2.10%(세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1.60%(세전)로 적용된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NH QV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은 연 1.55%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이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판매 개시 첫 날인 2일 여의도 NH금융PLUS 영업부금용센터를 방문, NH QV 발행어음 1호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영태 NH투자증권 사장. /NH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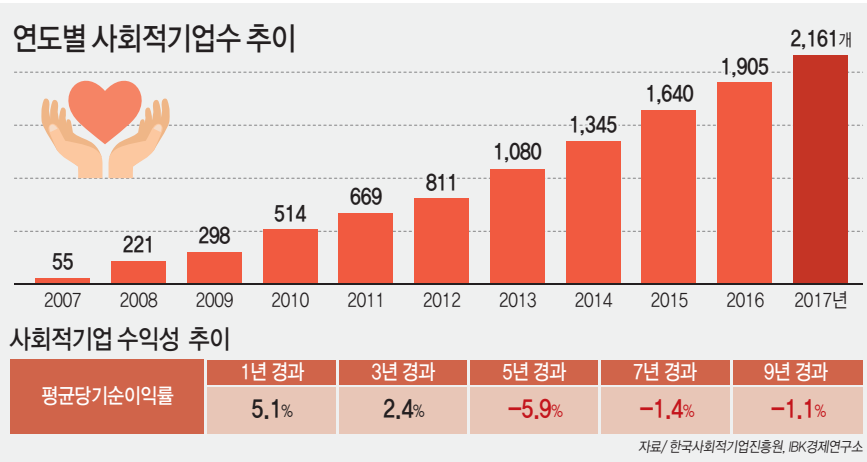
(세전)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발행어음은 매수 시점에 수익률이 정해지는 약정형 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7월 2일부터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김문호 기자 kmh@



# 정부만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글썸~’

IBK경제연구소, 158개 기업 분석  
기업 급증에 지원금 연평균 10% ↑  
5년 경과후 당기순이익률 -5.9%  
기업당 고용수는 3분의1로 급감



사회적기업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2일 IBK경제연구소가 사회적기업 재무정보를 가진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후 플러스(+ )였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5년 경과 후에는 -5.9%로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준으로 2007년 55개에서 지난해 2161개로 연평균 44.4%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역시 2011년 887억

원에서 2016년 1407억원은 연평균 10% 가까이 늘었지만 사회적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후 1년, 3년 경과 시점에는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각각 5.1%, 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는 ▲5년 경과 -5.9% ▲7년 경과 -1.4% ▲9년 경과 -1.1%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증 5년 이후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지원 중단 이후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모두 이탈하고, 살아남은 기업의 수익성만 집계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업력이 짧고 영세했다.

업력은 3~6년이 35.4%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업체가 전체의 69.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40.8%)이나 중소기업비즈니스(4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매출규모로는 5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77.8%로 대부분 소규모에 그쳤다.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율은 지난해 기준 32.7%에 달했다.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인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취소율이 높아졌다.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성은 없고, 생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사회적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인증 취소 기업 중 수익창출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 5년 동안의 지원 이후에는 인건비,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지는데 굳이 적자를 보는데도 운영할 이유가 없고, 기준만 맞추면 거의 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노

리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지난해 4만 1417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고용수는 2007년 68.6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용덕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확대는 오로지 인증기업 수 증가에 의존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지원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제도나 유예기간을 뒀다 한다”며 “이와 함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혜택을 주는 등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는 확실한 대책”

文 대통령, 나흘만에 공식일정  
“과로사·산재 등 획기적으로 줄 것”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늘 강조해오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을 듣게 돼 민망하다.”

연일 계속된 일정 등으로 과로와 감기 몸살로 인해 이틀간의 연가를 포함해 나흘만에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던진 첫 마디에 참석자들이 웃음을 지었다.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문 대통령의 안색은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얼굴은 살짝 수척해졌고, 쉰 듯한 목소리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9시계 집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는데 이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

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죽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

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비·통신비·의료비·교육비·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계에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시·도지사 당선인들과 만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감기몸살로 휴가를 내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김승호 기자 bada@

## 송영중 거취논란, 김영배 비자금 의혹 제기 때문? 경총사태 ‘점입가경’

오늘 임총서 송 부회장 해임 예정  
김영배 “비자금 조성은 오해” 부인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논란으로 시작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내홍이 김영배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경총이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오는 3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송 부회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사실상의 불신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임시총회에서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이 일부 사업수입을 유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임직원 특별상여금(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총은 실제 2004년 이후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경총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른 경제단체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어려워 매년 우수 인력의 이탈과 사기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용역사업,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연간 월 급여의 200~300% 내외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 조성 의혹은 부인했다. 상여금 지급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자금 조성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경총의 격려금 지급 관행을 문제 삼은 인물이 4월 새로 취임한 송 부회장이다. 송 부회장은 새로 취임한 뒤 이 같은 회계 처리 관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손 회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사팀장을 임명해 이 사안에 대해 감사도 벌였다.

다만 경총은 “송 부회장이 임명한 내부 감사팀장의 감사 결과에서도 특별상여금



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제기된 부회장 시절 사업수입 유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식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재계에서는 이번 비자금 의혹 제기의 출처가 송 부회장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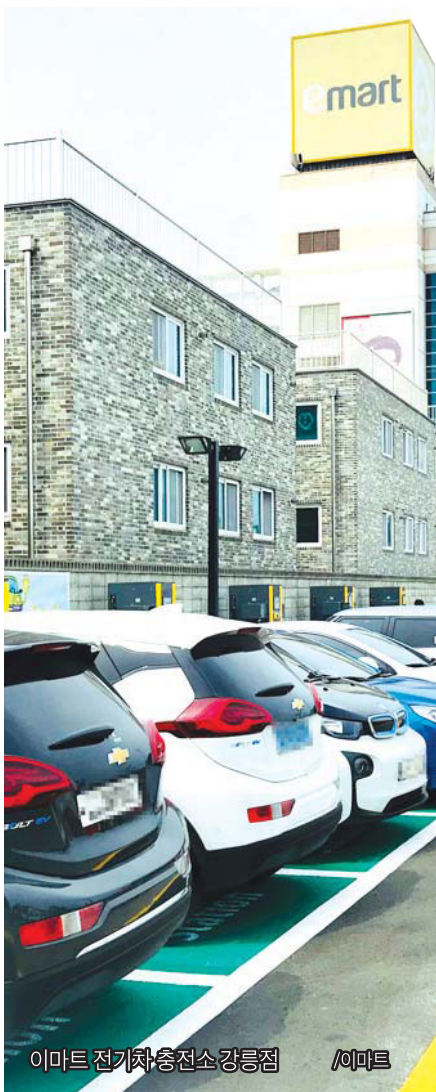
또 좀 더 크게 보면 송 부회장의 이 같은 개혁·변화시도가 기존 경총 사무국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송 부회장에게 거취 논란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송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노선을 같이 했다는 비판, 재택근무 등이 송 부회장 거취 논란의 발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총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기존 직원들과의 마찰이 송 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3일 열린 경총 임시총회에서 송 부회장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연합뉴스





## 장보고 오면 전기차 충전 끝?

# 이마트, 쏘점포에 40분 '완충' 집합형 충전소

(2021년)

대한민국에도 미국 실리콘 벨리의 '구글 캠퍼스'처럼 여러 대의 전기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합형'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 이마트를 통해서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 '집합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기차 이용객 성향이 이마트가 집객을 넓히고자 하는 젊고 감각적인 고객층과 겹치는 점을 감

렌터카 많은 속초·강릉 등 4곳 개시 점포 주차장 일부공간 업그레이드 11월 성수점·서귀포점 등 6곳 확대

안, 오프라인 매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이마트는 올해 우선 10개점을 시작으로 매년 30개 이상씩 집합형 충전소를 늘려 2021년까지 이마트 140여개 점포를 비롯한 신세계 그룹사 영업장에 총 1100기 가량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트라픽'과 손을 잡았다.

2일부터 개시하는 정식 서비스는 속초점·강릉점·검단점·구미점 등 총 4곳(각 9기)으로, 점포 주차장 공간 일부를 집합형 충전소로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속초점, 강릉점 등은 휴가철 전기차 렌터카 수요를 감안했다.

이어 11월에는 이를 성수점/죽전점/광

산점/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등 6개 점포로 확대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충전소 브랜딩과 디자인 개선을 완료하고 충전소 자체를 명소화해 '세상에 없던 전기차 충전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집합형 전기차 충전소는 유통업계 최초로 '초고속(100kwh급)' 전기차 충전소로서 동시에 18대의 차가 40분(현재 '아이오닉' 기준) 만에 충전을 마칠 수 있을 만큼 고사양이다.

요금은 충전 속도별(3종)로 회원가 기준 초급속(100kwh급)은 250원, 급속(50kwh)과 중속(20~25kwh)은 173원이다. 또한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번호인식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충전기는 점포당 평균 9기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1기당 차량 2대(총 18대)를

충전할 수 있다. 호환되는 충전기 타입은 '콤보 DC' (레이, 소울, 아이오닉 등)와 '차데모 DC' (스파크, i3, 아이오닉, 볼트 등) 2종이다.

이마트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2010년 유통업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현재 110여개 점포에서 '완속'과 '급속' 충전기 200여기를 운영하는 한편,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 D2역시 판매처를 현재 18곳으로 확대했다.

이마트 김득용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고객이 쇼핑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사업보고서 경영진단 여전히 '부실'

사업보고서에서 핵심기재 사항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이 여전히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의 MD&A를 점검한 결과, 형식적 요건은 75%가 충족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내용 충실도는 76%가 '부실'로 평가됐다고 2일 밝혔다.

MD&A는 경영진이 회사경영 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사업전망 등을 분석·공시하는 제도다.

MD&A의 충실기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점검보다 대사회사를 2배로 확대했다.

점검 항목별로는 기업들의 64%가 '개요'에서 홍보성 문구나 단순 통계수치만 제시해 가장 미흡했다. '재무상태·영업실적'은 33%가 변동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동성' 역시 25%는 당해연도 유동성만 기재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지 않았다. 또 '자금조달' 항목에서도 28%가 기말 기준 자금조달 현황만 기재하는데 그쳤다.

/안상미 기자 smahn1@

### (MD&A 점검결과 (종합))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형식		내용		
	충족	미충족	충실	보통	부실
금번점검 (18.6월)	75사 (75%)	25사 (25%)	16사 (16%)	8사 (8%)	76사 (76%)
1차 점검 (18.1월)	38사 (75%)	13사 (25%)	5사 (10%)	4사 (8%)	42사 (82%)



### 스마트폰 구매 1년 후... 중고폰 가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1~2년 후 중고폰으로 되팔 계획인 소비자라면 아이폰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1년 후 중고폰 가격이 타사 제품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착한텔레콤은 중고폰 빅데이터 제공사 유피엠과 함께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중고폰 잔존가치를 분석한 수치를 2일 발표했다.

1년 후 중고폰 잔존가치는 애플이 출고가 대비 절반을 넘는 5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3%, LG전자는 20%로 그 뒤를 이었다. 2년 후 잔존가치는 애플 29%, 삼성전자 14%, LG전자 7% 순이다.

중고폰의 잔존가치는 정상 작동과 액정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다. 외관이 깨끗한 'A급 중고폰'은 잔존가치가 10~15%포인트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10%의 잔존가치는 10만원 상당으로 환산될 수 있는 셈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향후 렌탈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중고폰의 잔존가치에 따라 렌탈비가 달라져 중고폰 잔존가치를 올리는 것이 스마트폰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애플의 중고폰 잔존가치가 높은 이유는 전세계 표준화 된 아이폰의 특성상 중고폰 유통량이 많고, 사설 수리점 등을 통해 수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이 꼽혔다. 또 iOS 업데이트 지원이 지속돼 오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LG전자의 중고폰 잔존가치가 낮은 이유는 2~3년 전 출시한 'G4'·'G5'·'V10' 등의 초기 불량률이 발생했고, 전세계 판매량이 줄어들며 중고폰 유통량도 줄어 잔존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조용한 '첫 출근'

父 집무실은 추모 의미로 보존키로 대외활동 자제·경영에만 집중할 것

구광모 LG그룹 신임 회장의 2일 회장으로의 첫 출근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동관 30층 집무실로 출근했다.

집무실은 아버지인 고 구분무 전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바로 옆 방에 마련됐다. 구 전 회장의 집무실은 추모의 의미로 보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회장 직함을 부여받은 뒤 사흘 만의 출근이자, 회장으로서의 첫 출근이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다.

다만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G 사내 게시판에 "고객가치 창조·인간존중·정도 경영이라는 LG Way에 기반한 선대회장의 경영 방향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시장을 선도하고 영속하는 LG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짧막한 취임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지난달 29일 LG그룹에서 배포한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LG

보도자료에 소개된 당일 이사회에서의 구 회장 인사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한 ㈜LG 관계자는 "구 회장이 당분간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그룹경영 현안에만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7월에 개최되는 임원 세미나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임원 세미나는 구분무 전 회장이 주재했었고, 구 전 회장이 와병 중일 때는 구

분준 부회장이 이끌었던 행사다.

'구광모호(號)'가 이처럼 조용히 출항한 것은 그룹 내부 쟁기기를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 회장은 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재계의 예상보다 빨리 그룹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그런 만큼 구 회장은 당분간 하현회(㈜LG 부회장 등 계열사 부회장단)로부터의 수시 보고를 통해 그룹이 돌아가는 상황부터 면밀히 파악, 실질적인 그룹 장악력부터 키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로서는 11월 사업보고회가 구 회장의 첫 대외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회는 하 부회장이 주재를 맡았는데, 오는 11월 올해 한 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하반기 사업보고회를 구 회장이 처음 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사업보고회 이후 인사가 진행됐던 만큼, 올해 구 회장이 사업보고회 이후 자신만의 경영원칙으로 취임 이래 첫 인사를 단행할지도 주목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NAVER

## 정보보호의 달 맛이 정보보호 활동 활발

네이버가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이용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지식 테스트와 인식향상을 돕는 '스텝 1'과 네이버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스텝 2'로 이뤄진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스텝 1'은 이용자들이 '네이버 개인정보 학력고사'에 응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며, 답안을 제출한 이용자 중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네이버 개인정보 학력고사' 문제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100% 달성 프로젝트 스텝 2'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에 참여한 이용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네이버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안한 두 명을 선정하여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 미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GDPR 강연도 개최한

다. 오는 26일 이진규 최고 개인 정보 책임자(CPO)가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는 내부 임직원의 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정기 보안 교육 외에도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및 블록체인 관련 보안 이슈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용대 교수,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 등을 초청해 내부 강연을 진행했으며, 오는 20일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김대식 교수를 네이버 그린팩토리로 초청해 '뇌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주제로 내부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서운 기자 yuni2514@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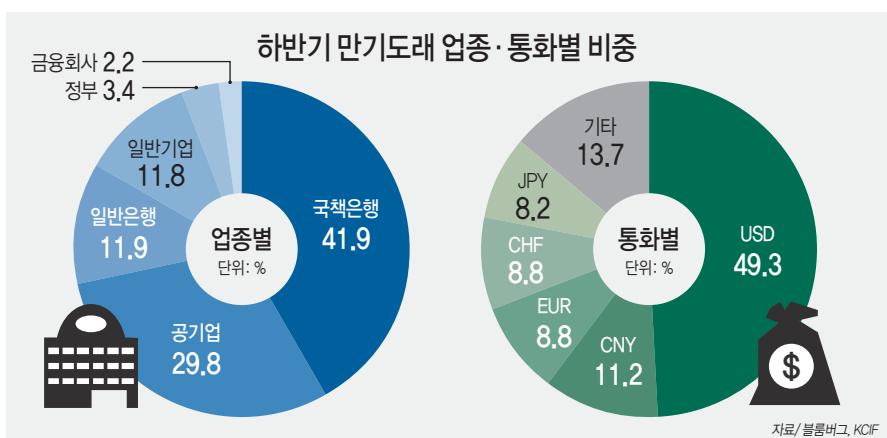
wenger.co.kr



# 韓경제 복병 떠오른 '138억弗 외화채권'... 상환 vs 차환?

(올 연말 만기도래)

상반기 보다 20억달러 많아  
비중 1위 국책은행 41.9%  
11월 美 중간선거·금리상승에  
조기차환 수요 증가 가능성



#. 국내 증견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A 씨. 올해 그의 가장 큰 고민은 G2(미국·중국) 무역전쟁과 법인세, 금리 등 3중 세트다.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길이 좁아질까 걱정이다. A씨는 "미국과 중국 모두 오는 7월 6일을 기점으로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1차). 갈수록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에 허리를 졸라매야 할 처지"며 한숨을 내 쉬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다. 투자를 미뤘다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다. 투자하려면 당장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비용이 걱정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최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산금리 상승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내 기관들이 138억달러에 달하는 외화 채권 만기를 무사히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전망대로 경기가 움직인다면 곧(soon) 다음 단계를 밟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6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도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서서 모양새다. G2의 무역분쟁이 첨예한 가운데 중국의 역대 채권 디폴트 증가, 위안화 약세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 도래액은 138억 달러다.

상반기 118억달러 보다 20억달러가 많다. 외화 채권 만기 도래액은 지난해 1분기 185억달러를 찍은 후 2분기 125억달러, 올해 1분기 118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관별 비중은 국책은행의 빛이 41.9%(58억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29.8%, 41억 달러), 일반은행(11.9%, 16억 달러), 일반기업(10.8, 15억 달러) 순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가 49.3%(68억 달러)가 가장 많다. 위안화 11.2%(98억 위안), 유로화 8.8%(10억 유로), 스위스프랑화 8.8%(11억 프랑), 엔화 8.2%(1197억엔) 등도 여타 통화 만기도 적잖다. 국제금융센터 황재철 연구원은 "4분기

에 81억달러 규모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금리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조기차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화채권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물 차환수요도 부담 요인이다. 시장 금리도 상승세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 연 말 미국 국채금리가 3.1%(9월 3.04%, 12월 3.09%, 9개 해외 IB 전망치 평균)에 달할 것으로 본다. 내년 3월에는 3.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투자등급 달러채 스프레드는 지난 2월초 109bp(1bp=0.01%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 최근 148bp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투자자금도 아시아 신흥국 채권펀드(hardcurrency)에서 자금을 빼내고(2월부터 유출중) 있다. 기업들은 걱정이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가산금리)이 늘 수밖에 없어서다. 가산금리는 신흥국 불안, 달러 강세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국내 A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미국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물 가산금리 축소 폭이 컸고 유동성도 풍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물 차익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투자수요도 둔

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국내 IB업계 한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세계개편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조달비용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외불안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신흥국 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월 달러 리보(LIBOR)는 2.34%로 지난해 말 대비 65bp 급등했다. 이는 채권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또는 환헤지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한국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레딧(신용)이 우수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가산금리 상승폭이 15bp 내외로 제한돼 있다"면서 "다만 북미 간 핵협상, 추가 정상회담 등의 경과에 따라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매우 견고하다는 인식도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는 국제적 충격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재정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지속적 구조 개혁이 행에 따라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문호기자 kmh@metroseoul.co.kr

## 코트라, '美 P3 시장 공략법' 제시

금융·건설·운영관리 기업 등 동반진출 컨소시엄 구성 필요

코트라(KOTRA)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조5000억달러 공공인프라 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2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미국의 P3(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인프라 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숙원사업인 '공공인프라 1.5조 달러 투자'를 위해 미국 P3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호주·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업수행경험 확보, 금융조달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패키지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행한 세제개혁으로 재정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미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를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원 2000억 달러를 활용해 나머지 1.3조 달러 규모의 민간자본을 주·지방정부가 P3 방법 등으로 조달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달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 정부가 워싱턴 DC에서 매년 개최하는 투자 박람회 '셀렉트(Select) USA'에서 미국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해외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으며 각 주정부들도 유망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며 투자유치에 앞장섰다.

일본은 미국 인프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연기금·민간자본 투자를 공언했으며,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현지공장 설립을 병행해 인프라 기자재 시장 공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은 설계·기술자문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 능력 및 자본력을 무기로 이미 미국에

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비용의 최대 20%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민간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 시장 사업수행 경험을 쌓기 위해 현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참여, 하도급 계약,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형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계약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소수인종, 여성, 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일명 '8(a)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도 검토해야 한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자본력, 기술력, 사업수행 경험 등에서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 대비 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 건설·엔지니어링, 기자재 공급, 운영관리, 시스템 통합 기업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반 진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외에도 주차장 건설,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등 틈새 시장과 학교, 병원과 같은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금융기관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우리기업과 연계한 미국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P3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은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무협 해외 TV홍소평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8 해외홍소평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총 11개국 33개 바이어들이 국내 수출기업과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투협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지원"

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비상장 혁신형 기업의 기술분석 지원 및 자본 시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산업기술진흥원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금투협은 '월드클래스 300' 등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혁신형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가 필수"라며 "혁신기업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가치(Valuation)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병구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장, 김동균 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전략본부장,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창환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금융투자협회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술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분석 지원함에 따라, 기술투자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신산업 투자 촉진과 혁신분야 일자리 확산의 계기가 기대된다"며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기술분석보고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결식 직후 양 기관은 실질적인 업무협력 및 성장·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5社) 대표, 증권사(2社) 관련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학계 등을 초청해 ▲비상장혁신기업의 도전을 위한 플랫폼 'K-OTC' ▲'기술분석보고서'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탄력근로제 현 3개월은 짧아... 1년으로 연장을”

## 전경련,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

탄력·선택 등 4개 근로유형 제시  
“유연근로제, 환경맞춰 개선해야”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간의 제도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



2일 서울 영등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4가지 유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제시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휴주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유연근로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늘어난 여가시간 ‘문화가 있는날’이 채운다

여가활동 만족 27%·불만족 26%  
문체부, 문화 공연·전시·영화 등 직장인 맞춤 행사 등 프로그램 확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함께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화 공연, 전시, 영화 등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맞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전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여가시간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7.2%, ‘불만족’하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54.2%의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 24.4%가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문화예술을 통해 여가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8.5%로 나타났다.

## 〈문화가 있는 날 분야별 혜택〉

분야	혜택 내용
영화	전국 영화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매일 400개 관 내외)에서 영화를 5,000원에 관람(오후 5~9시)
공연	연극·뮤지컬, 음악·연주회, 무용 등 공사립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무료·할인 혜택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공사립 미술관·박물관 전시 무료·할인 관람, 개관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연장 개관 및 교육·체험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주요 문화재 무료개방
스포츠	프로 야구·농구·배구·축구 등 종목별 스포츠관람 50% 이상 할인 및 특별 이벤트

/자료=문체부

이에 문체부는 올 하반기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매일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감성콘서트 ‘집콘’은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서울 스튜디오 콘크리트)이란 주제로 준비돼 있다. 직장인들을 위한 공연과 함께 마련될 이번 집콘은 직장인들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 그들만이 겪는 고충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네이버 티브이(TV)와 브이 라이브(V LIVE) 생중계를 통해 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일터에서 즐기는 막간의 휴식 ‘직장문화배달’이 하반기에도 준비돼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영위하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인 ‘여가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시, 직장문화배달에 참여했던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해당인증기업에 속해 있다. 하반기에는 출판 산업과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도깨비책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joker@



대화하는 한-룩셈부르크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확대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책브리핑

#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안전체계 불시점검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국토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년대비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국토부가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과 비교해 28명 줄었다. 그러나 대형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해 매일 4개 현장씩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채신희 기자 csh9101@

# 백운규, 기업 방문 노동시간 단축상황 점검

(산업부 장관)

안착방안·애로사항 등 청취

이달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기업들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2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 기업인 (주)동진세미켐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 檢,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등 위반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범종 기자 joker@

#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

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제정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또한,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 경기 '청년연금', 4개월만에 끝?

(남경필 前지사 정책)

이재명 경기지사 부정적 견해 밝혀  
2차 지원대상 발표는 무기한 연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경기도의 '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 4개월여 만에 결국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6000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이어 5월 2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808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자를 모집했다.

도는 당초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차 지원대상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수정 공지했다.

반면, 청년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통보'라고만 재공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0년간 일할 경우, 도 지원금을 포함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는 최근 "당선인(이 지사)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청년연금을 계속할지는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연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위로부터 어떤 방침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년연금 지원 신청자들이 선정 결과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속 시행 여부 등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해 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고성철 기자 ksc@metroseoul.co.kr

## 허례허식보다 민생... 취임식 취소한 당선자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임기 첫 날인 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태풍 '쁘라삐룬'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뉴스1

## 전남도지사·전남자치단체장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태풍 대비 나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이 2일 민선7기 취임식 행사를 취소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먼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뒤 곧장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태풍에 따른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한데 이어서 오후에는 도내 곳곳의 상습 피해지역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첫 날인 1일 오전 도청 간부들과 현충탑과 김대중 동상을 참배하고, '제7호 태풍 뿌라삐룬 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보성 모원 저수지 제방 붕괴 현장 등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봤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외빈 초청 없이 취임 선서와 재난안전대책회의로 취임식을 대체했다.

전남 지역에서 김중식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가 취임식 대신 태풍 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동진 진도군수는 "북상 중인 태풍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취임식보다는 군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전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세요”

고양시, 폐기물 배출 개선사업 추진  
단독주택·소형음식점에 무상 배부

고양시는 관내 일산동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은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한 배출·수거 방식으로 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최초 1회 한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한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백석1동, 마두1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정발산동 등 일산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도로변에 120리터 전용용기를 거점 배치해 수거·처리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증가 및 무단투기, 특히 쓰레기



고양시는 관내 일산동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추진 한다. /고양시

배출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검토해 지난해 일산동구 백석2동 및 중산동 일부지역에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약 30%가 감소됐으며 무단투기 및 민원 발생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부한 개별용기에 종량제봉투를 담아 배출하거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고리형으로 부착한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최초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배부되는 배출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부담 해야 한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

## “여름철, 잔류농약 많아” 정밀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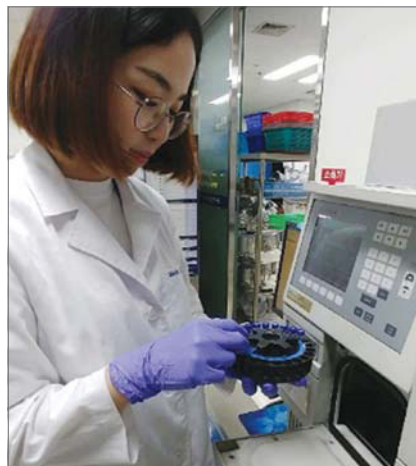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률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 여름철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던 썩갯, 고춧잎, 깻잎, 얼갈이, 참나물, 상추 등 20종이며, 다이아지는 등 263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하게 된다. 썩갯의 경우 지난해 7월~9월 사이 13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모두 130건으로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74건이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했다. 연구원은 장마와 기온 상승으로 농가의 농약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압류·폐기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김승열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 /경기도

## 광주고용노동청 '청년노동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 5000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여·28)씨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에 H사라는 용역 회사를 만든 뒤 광주와 울산, 인천 등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을 전남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시킨 뒤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씨 등은 고급 외제 승용차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검거반을 구성해 전주, 대전 등 주요 출몰지를 탐문 수색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혈세, 제대로 쓰이길” 취임사 서면 공개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취임식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일 취임사를 서면으로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지사는 군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역을 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열고있는 평화의 시대, 번영하는 나라를 지방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남북 간 교류 협력,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겸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 강자의 황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도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수원=고성철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 김순호 구례군수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갑작스러운 취임식 취소로 군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가(가운데)가 태풍 피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사업은 시계추, 흥하거나 망하거나... 개인보다 조직의 힘”

## ESC 상생포럼 공동기획

**정현식 프랜차이즈협 수석부회장**  
성과보상으로 주인의식 갖게해야  
해외진출, 현지회사 인수 고려할 만  
“상장은 우군 확보를 위한 길”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 /해마로푸드서비스

“사업은 시계추와 같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 부회장이자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은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패종시계의 추가 가운데 멈춰있을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듯이 사업도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개인보다 조직의 힘이 더 크다는 믿음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수제버거·치킨 브랜드인 맘스터치로 잘 알려진 회사다. 정 회장은 45살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첫해 40억원 정도였던 매출을 현재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사업은 시계추와 같다는 말은 정 회장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사업 실패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26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3년을 일한 후 29살에 사장을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풀쩍 망했다”고 회상하는 그는 사업에 실패한 뒤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또 다시 사업을 접고 회사에 들어간다.  
총무과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경력을 쌓아 2004년 창업한 그는 순조롭게 경

영해 5년 후인 2009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꾸준히 성장해 2016년 상장했다. 정 회장은 “창업하고 5년의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한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장을 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약 4000개 업체 중 2개사만 상장했기 때문이다. 0.05%의 상장률로 일본, 미국, 대만 등의 나라가 30%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정 회장은 “상장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프랜차이즈는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포함해 여러 제한을 뒤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 회장은 꾸준히 상장에 도전했고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그가 상장에 관심을 보인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상장은 우군 확보를 위한 길이었다”고 덧붙였다. 상장을 하면 수많은 주주들이 생겨 롯데리아, 맥도날드와 같은 강한 경쟁상대와 맞붙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군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

는 정 회장은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자금이 5억원을 책정했다면 그 5배인 25억원을 가지고 시작해야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에 대한 경험 없이 계획을 하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고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 해야 할 시간에 돈 구하러 다니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자금 문제를 비롯해 조직, 인력,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을 위해 어떤 경력을 쌓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임의 달인’으로 불리다는 정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명언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어라’를 인용하며 “조직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훨씬 크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가치 제공, 비전 제시, 가장 잘하는 분야 선정, 수익 구조 파악, 성과지표 관리를 성공 비결로 제시했다.  
정 회장이 말하는 맘스터치의 비전은 가성비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 나타낸다.

정 회장은 “맘스터치의 싸이버거는 경쟁사의 치킨 패티보다 2배 크게 만들지만 가격은 그에 비해 2000~3000원 저렴한 3400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성과보상을 중요시한다.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하려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업 초기 2억원을 벌었으니 2억원의 30%는 직원에게 보너스로 줘야겠다고 생각해 6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와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줬다”고 말했다. 첫해에 5억원이 손해였다면 두 번째 해에는 3억원으로 줄어 2억원을 벌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직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CEO들이 돈을 벌면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런 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사업의 해외진출은 성공하기 힘들다”면서도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서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일 경기 부천에 있는 에이엔피를 방문해 전문관 대표(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해야 과로사회 탈출”

**(중기부 장관)**  
근로기준법 적용 후 첫 중소기업 방문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2일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과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이 이날 방문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사 에이엔피와 알루미늄 주조사 대용산업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 기업으로

이달부터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홍 장관은 올 연초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등을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홍 장관이 방문한 두 기업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직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박길연 하림 신임사장 “2030년 세계 10위권 축산기업”

지역사회·국가 발전 기여  
‘상생경영 하림’ 의지 표명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전문경영인으로 박길연(56) 신임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닭고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  
하림은 2일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박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이날 “국내 닭고기 산업의 선도 기업인 하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대표는 1985년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천하제일사료에 입사해 판매본부장과 ‘올품’의 영업본부장을 거쳐 기획



박길연 (주)하림 신임 사장이 2일 오전 11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명 익산공장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림그룹

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한강씨엠 대표이사를 맡아 닭고기 계열화사업의 사육과 생산, 영업과 경영까지 전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농가 상생경영을 통해 연평균 소득 2억원 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

는 상생 하림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익산공장을 증축, 리모델링 중이다. 새롭게 변신하는 익산공장은 국산 닭고기 품질경쟁력을 선도하며 수입산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완벽히 방어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우리 회사가 2030년 가금식품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며 “하림의 끝없는 도전 정신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달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롭게 하림을 이끌어나갈 전문경영인으로 박 대표를 선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SK케미칼, 백신부문 사업 분사 SK바이오사이언스로 ‘새 출발’

전문성 강화·경영 효율성 제고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일 공식 출범했다.  
SK케미칼은 1일 기존 백신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인 ‘SK바이오사이언스’로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번 분할로 SK케미칼은 친환경 소재 사업 및 합성의약품 사업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사업에서 각각 전문성 강화에 나서게 된다. 또 SK바

이오사이언스는 외부 투자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마련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신설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이사에는 안재용 SK케미칼 백신사업 부문장이 선임됐다.  
안 대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혁신적 R&D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시설은 성공의 근간”이라며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백신전문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자체 개발 백신과 글로벌 기구들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백신, 세계적 생산 규모의 백신 공장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국내 유일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와 스카이셀플루4는 출시 이후 3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40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돌파했고 WHOPQ(사전적격심사) 인증을 통한 국제 입찰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월엔 글로벌 백신 리더인 사노피 파스퇴르에 최대 1억5500만불 규모로 독감백신 생산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 대원제약 발달장애청소년 음악교육 후원금 전달

대원제약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인 하트하트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대원제약의 사내 합창단인 ‘대원하모니’의 11회 정기연주회 기금 및 모금액으로 마련됐으며, 기부금 전달식은 2일 오전 대원제약 본사 10층에서 대원제약 김재호 사장과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원제약의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2일 오전 대원하모니 나눔콘서트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왼쪽)과 대원제약 김재호 사장. /대원제약



# “코덕 모여라”... 몸집 키우는 편집숍 ‘시코르’·‘라코’

〈‘화장품’(Cosmetic)과 ‘덕후’의 합성어〉

##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13개 매장 운영... 연내 20개 확대

## 롯데백화점 ‘라코’

단독브랜드 입점·뷰티 유튜버 초대

최근 젊은 2030 여성 소비자들은 단일 유명 브랜드 스토어보다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뷰티 편집숍이나 H&B(health & beauty) 스토어를 선호한다. 이에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코덕(코스메틱 덕후,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2030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들의 놀이터’를 표방한 화장품 편집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이 2016년 12월 대구점을 시작으로 처음 선보인 ‘시코르’는 지난달 29일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313.5㎡ 규모로 오픈, 전국 13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이번 매장은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 대전산점점이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시코르 로드샵이기도 하다.

특히 시코르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는 지난해 12월 오픈, 올 1~5월 누적 매



시코르 매장 내 조성이뷰티.

/조성이뷰티

출이 목표를 10% 웃돌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브랜드와 체험형 이벤트가 고객들의 흥미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시코르는 점포별로 상이하지만, 약 150~200개 수준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코엑스몰에 들어선 시코르 매장은 K뷰티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별마당도서관이 오픈한 이후 방문객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시

코르까지 문을 열면서 코엑스를 찾는 고객은 점점 많아졌다는 평가다. 면세점과 호텔 등 관광 인프라가 많은 지역인만큼 외국인 고객도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내 시코르 매장을 20개까지 확대하고 계열사 외에 다른 유통채널로 매장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롯데백화점도 화장품 편집숍 ‘라 코스메티크’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몸집키우기에 나선다.



LACO 비주얼.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2014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동부산점에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를 벤치마킹한 ‘라 코스메티크’를 론칭했으나 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브랜드명을 ‘라코(LACO)’로 바꾸고 친근한 콘셉트로 재정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 영플라자 1층에 화장품 편집숍 ‘라코’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라코’의 주 타깃층은 10대~30대 초반이다. 이들은 유튜브로 화장법을 찾아보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

가는 세대다.

롯데는 이 타깃층을 잡기 위해 독특한 시도를 했다. 화장품 매장 내에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전체 매장 중 3분의 1을 ‘트레저헌터 존’으로 꾸몄다. 트레저헌터는 뷰티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기획사다. 롯데와 트레저헌터가 계약을 맺고 김이브, 양명, 유갯잇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화장품을 라코에서 판매한다.

주말에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정기적으로 스튜디오에 방문해 메이크업 쇼를 진행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중에는 스튜디오를 일반 뷰티 크리에이터에게도 개방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를 가까이서 만나고, 본인도 직접 매장 내 방송 장비를 활용해 뷰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색다른 매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은 영플라자 특성을 살려 중국 유튜브 초청 행사도 연다. 백화점 측은 중국 뷰티 유튜버(왕홍)도 초청해 ‘라코’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현대백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새단장

## 무역센터점 오늘 오픈

4개월간의 리뉴얼 공사 끝나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올 연말 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로 새롭게 변신한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이 오는 3일 4개월간의 내부 리뉴얼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에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는 매장은 3층~7층, 10층 등 총 6개층이며, 총 600여 개 국내의 유명 브랜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8층과 9층에 있던 아동·골프·리빙 상품군은 4층으로 이동하고, 4층에 있던 디자이너 상품군은 3층으로 이동한다. 라제리와 구두·핸드백 상품군은 각각 5층, 6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성패션 상품군이 있던 7층에는 아웃도어와 트레이닝 브랜드들이 함께 자리 잡았다.

특히 4층에는 갤러리 콘셉트의 ‘럭셔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외관 야경.

/현대백화점

리빙관’을 새롭게 오픈한다. ‘럭셔리 리빙관’에는 매장 곳곳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가 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럭셔리 리빙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뉴욕스타일의 트렌디 가구·생활 소품 브랜드 ‘웨스트엘름’과 네덜란드 프리미엄 디자인 가구 브랜드 ‘모오이’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20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글로벌 컨시어지’가 2층에 들어서며, 세금환급과 배송서비스는 물론 1:1 쇼핑 통역 서

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새단장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하와이 페스티벌’을 테마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하와이 여행 상품권(1명), LG 스타일러(2명), 제습기(3명), 다이슨 공기 청정기(4명), 캐리어(20명), 하와이 백(300명)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대형 할인 행사와 이벤트도 연다. 오는 8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선 ‘썸머 바캉스 마켓’을 열어, 비치웨어·피크닉 용품·아웃도어 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이재실 무역센터점장(상무)은 “이번 새단장 오픈을 통해 국내에 선보이지 않은 차별화된 매장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며 “국내의 유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국내 최고급 백화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100개 추가 확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현금없는 매장시대’ 연다... 100곳 추가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정산 시간 줄고 서비스 제공 넓혀

스타벅스가 본격적으로 ‘현금 없는 매장’ 시대를 연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현금 없는 매장을 전국 100개 매장에 추가 확대하며, 오는 16일부터 총 103개의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23일부터 관교H스퀘어점, 삼성역점, 구로에이스점 등 총 3개 매장을 현금 없는 매장으로 시범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서울 74개점 등 전국의

100개 매장 추가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는 “보다 나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미래 신용사회의 진입에 대한 선도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타벅스가 지난 2달간 현금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했던 3개 매장의 현재 현금 거래율은 0.2% 수준으로 기존 3%에서 더욱 축소됐다. 3개 매장을 합해 하루 1건 정도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현금 정산 시간도 기존 10분 내외에서 현재 3분 내외로 줄어들며 70%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

/신원선 기자

# “편의점에서 티웨이항공권 결제하자”

## GS25·세븐일레븐서 결제 서비스

편의점에서 항공권을 결제 할 수 있게 됐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편의점에서 항공권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결제 방법은 간편하다. 티웨이항공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후, 결제 방식을 ‘편의점 결제’로 지정한다. 그리고 가까운 GS25, 세븐일레븐 매장을 방문해 본인 휴대폰으로 발송된 수납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항공권 예약이 완료된다.

‘편의점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 방법이 어려운 학생, 외국인, 노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이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항공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GS리테일

으로 보인다.

이우리 세븐일레븐 서비스상품담당 MD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편의점 항공권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자신이 더욱 편리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함께 ‘서머 풀파티’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이처리퍼블릭

## 네이처리퍼블릭

### ‘서머 풀파티’ 프로모션 실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도심 속 리조트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7월 한 달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서머 풀파티’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호캉스(호텔+바캉스)’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겨냥한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민서 기자

# 신세계푸드, 할랄푸드 ‘대박라면’ 판매

신세계푸드가 동남아에서 선보인 할랄푸드 ‘대박라면’을 수입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할랄푸드로 개발한 대박라면을 출시한 신세계푸드는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맛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300만 개를 판매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국이슬람교서 울중앙성원에서 신세계푸드가 국내 거주 무슬림을 대상으로 대박라면 시식행사를 펼쳤다. /신세계푸드

/김민서 기자



# 정몽구재단, 신규 장학생 110명에 장학증서

### 올 하반기 장학금 14억원 지급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에서 '2018년 신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열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25명, 기초학문 분야 대학생 35명, 문화예술분야 중·고교생과 대학생 50명 등 1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앞으로 이들은 여름캠프, 전공별 멘토링, 학술 세미나 등 연간 프로그램에 함께참여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재단은 이번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과 기존에 지원해오던 장학생에게 올해 하반기 모두 약 14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습지원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재단은 또 장학생이 해외 학술대회나 콩쿠르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대학·기관 등으로 진출 시 체재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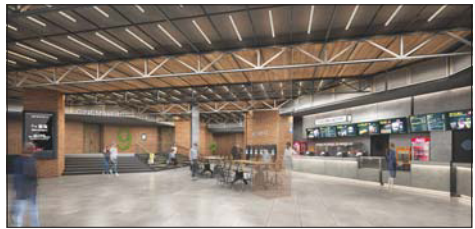
30일 2018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신수정 이사장(가운데)과 장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정몽구재단

아울러 음악 전공 장학생들에게 나눔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온드림 앙상블'이나 대학생들이 고민해봐야 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온드림 임팩트 학술세미나'를 운영하는 등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다각도로 장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다고 재단은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인재양성 장학금 외에도 순직·공상 경찰과 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나라사랑 장학금,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CGV강변 20주년 맞아 '힐링' 콘셉트로 재탄생



CGV강변 리뉴얼 오픈

/CGV

1998년 4월, 강변 테크노마트에 선보였던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CGV강변이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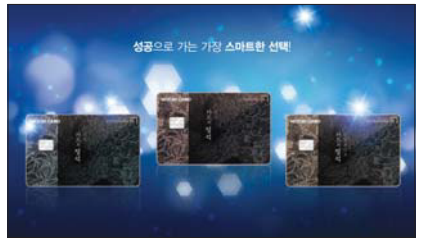
CGV강변이 색다른 디자인 콘셉트와 특별한 공간이 더해져 11개관 1,461석 규모로 7월 6일 리뉴얼 오픈한다. 새로워진 CGV강변의 디자인 콘셉트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힐링(Healing)'이다. 지난 20년간 고객들과 함께 한 CGV강변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극장을 찾은 고객들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 외에도 '쉽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기업카드 3종 출시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시리즈의 기업카드인 '카드의 정석 기업', '카드의 정석 기업 포인트', '카드의 정석 비즈' 3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카드의정석' 기업카드 3종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에 맞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특급호텔 및 인천공항 발렛과킹 서비스와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연 2회), 호텔 객실 및 식음료 할인, 여행 할인 및 골프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의 정석 기업 포인트'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카드 이용 패턴에 최적화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월 적립 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신차 구매(국산·수입 포함) 및 4대 주유소(SK엔크린·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해외 가맹점 이용 시에는 1% 특별 포인트 적립해 준다.

/사유리 기자 yul115@

# 종로구 궁중음식축제 아이디어 공모

서울 종로구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의 체험 프로그램과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궁중음식축제 참가자를 모습. /종로구청

축제는 10월 12~13일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린다.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민족 고유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계절별로 먹었던 음식과 세시풍속 등을 즐길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체험 프로그램 제안,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참가자 모집 두 가지다. 체험 프로그램 제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5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60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72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려야 실수가 없는 법. 84년생 일시적인 감정 이 도를 벗어나 입방아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날.
- 소**  49년생 북쪽 방면에서 귀인이 온다. 6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73년생 자신의 특기가 대단하게 생각되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85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다.
- 호랑이**  50년생 신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62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나 의외의 복병이 있으니 주의. 74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6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 토끼**  51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 풀린다. 63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오늘이 최선이다. 75년생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이지 말 것. 8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니 일찍 서둘러라.
- 원숭이**  52년생 선봉에 나서면 남들의 시기를 받는다. 64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76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8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 뱀**  53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5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어라. 77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성공보다 완벽한 복수는 없으니 일에 정진하라.

- 말**  54년생 출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66년생 망설임은 행운을 차는 결과를 가져온다. 7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90년생 인맥을 잘 활용하여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 양**  5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가 있다. 6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가 좋다. 91년생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라.
- 원숭이**  56년생 중심을 잘 세워야 주변의 원망을 듣지 않는다. 68년생 개띠, 호랑이 띠와의 거래가 있을 수 있겠다. 80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준다. 92년생 남의 부러움을 살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 닭**  57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게 미덕이다. 69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니 적당히. 81년생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실수가 없다. 93년생 두 손에 떡을 들고 어느 것을 먹는지 행복함 고민.
- 개**  5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70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다. 82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곧 오겠다. 9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진중하게 행동하라.
- 돼지**  59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즐거운 하루. 71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술술 잘 풀린다. 83년생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면 구설수가 있겠다. 95년생 우물이 옆에 있으니 두레박만 찾으면 성공이다.

## 김상회의 4季 떨어져있는 시간이 전환점

"딸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마음이 안 좋죠.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으면 집에서 편히 다닐 텐데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상담을 온 어머니의 말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딸과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옛날에 사주를 보았을 때 딸과 엄마의 궁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딸이 지방으로 가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진 게 신기했다. 사주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운세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해 했다. 대학교에 가기 전 딸과 엄마는 갈등과 마찰의 연속이었다. 말하는 방식이 직설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것도 두 사람이 똑같았다.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딸이 가출도 했었다. 둘 사이의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다. "딸이 일주일이나 주일에 한번 집에 오니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았다. 매일 얼굴을 보다 가끔 보게 되니 애뜻하더라. 그동안 있던 이야기를 하느라 대화하는 시간도 옛날보다 훨씬 늘었고 자연스럽게 갈등은 적어졌다. 두 사람은 극하는 오행으로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려는 기운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모든 게 대립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동안 딸과 엄마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딸도 성인이 되었고 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전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만들 것이다. 또한 딸의 사주에는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어딘가로 튀어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대입 공부를 하느라 집에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 그 불만 때문에 얼굴에 화가 가득했던 것이다. 집을 떠나 지방으로 학교를 가면서 역마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혼자 자유롭게 생활하고 부모 간섭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 터질 것 같은 욕망의 숨구멍이 생긴 셈이다. 불만이 풀리니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몸에 흐르는 기운도 생기가 돈다. 엄마는 딸이 지방으로 대학을 가서 마음도 안 좋고 걱정도 된다고 했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잘 된 일이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꼬였던 것들이 술술 풀리고 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도타워지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집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을 택하는 게 좋다. 지금과 같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7					4	5
1		4	5			9		
	5	9	7	3				1
				9				7
	8	6	1	5				3
4		3	9			2		
		5					8	9
					5	7		

	1		2					3
						9	8	
				5	6			2
	2	8	6					1
5							7	
6		3				7	2	8
8	5		7		6			
		2			3			
1		7	9	2				

**스도쿠 정답**

4	1	5	9	8	2	6	7	3
6	8	2	7	3	5	1	9	4
9	5	3	8	1	6	4	2	7
2	6	7	2	5	1	9	8	3
3	2	5	9	6	8	1	7	4
1	9	8	7	4	3	5	6	2
7	4	6	1	2	9	8	3	5
8	2	9	1	7	3	6	5	4
5	8	9	7	2	6	1	4	3
7	3	1	5	8	2	9	6	4
2	6	9	1	4	7	5	8	3
8	5	2	4	6	1	9	7	3
9	7	4	2	8	5	1	3	6
6	1	2	5	7	9	8	3	4
3	7	1	9	5	6	8	4	2
1	9	8	6	4	7	5	2	3
4	6	5	8	1	2	9	7	3

문제 제공= **보노스**



# 성공창업 세 가지 필수조건



**이상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들이 챙겨야 할 많은 내용 중 모든 예비 창업자가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유망한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인가?'이다. 유망한 업종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필수조건 세 가지는 바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다.

첫 번째 성장성,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없어도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전체 매출도 커질 것이고, 덩달아 돈을 버는 사업자도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성장성은 유망업종의 판단 여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성장성 요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 즉 충분히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버텨 내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한 후 6개월 내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

해야 하고, 창업 1~2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업종과 성장성을 보는 또 한가지 관점은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문제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을 유행 업종이라 하고, 긴 업종을 고유 업종이라 분류한다. 유행업종의 경우 반드시 성장 단계 초입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반면, 고유 업종은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성숙기나 쇠퇴기에 창업을 해도 큰 위험은 없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할 때 너무 앞서거나 뒤져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정성, 안정성이 있다는 말은 곧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업종의 경우 잠재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으나, 새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숨어있는 수요, 즉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는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자금 회전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라도 지나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무리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익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진이다. 마진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둘째는 투자비 문제다. 아무리 장사가 잘될 만한 업종도 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비 부담이 크면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투자비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회수 안 되는 투자비와 회수가 되는 투자비다. 점포 구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점포 구입비는 대체로 회수되는 돈이므로 안심 할 수 있다. 단, 관리금이 많이 드느냐, 보증금이나 월세로 많이 들어가는냐는 좀 다른 문제이다. 관리금은 영업권리금, 장소권리금 등으로 영업권리금의 경우 점주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시설권리금의 경우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치게 되거나 하면 손해가 나므로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경제성도 따져 봐야 한다. 월세는 얼마나 드는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가, 재투자비가 많이 드는가, 홍보 및 접대비는 많이 드는가 등의 여부다. 이상의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만족된다면 그만큼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 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국립외교원 교수



WeGO사무국의 사무총장은 WeGO 규약에 따라 WeGO 의장이 임명하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러시아 울리야놉스크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의장도시로 재선출된 바 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국립외교원 교수(56·사진)가 임명됐다.

WeGO는 세계 도시 및 기업간 스마트 시티 우수 정책과 혁신적 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의체다.

서울시는 WeGO 사무총장에 이경렬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진희 기자



**NH농협은행, 1회 아마추어 배드민턴 대회 성료**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아마추어 배드민턴 랭킹리그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여개 시·군에서 12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NH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빅데이터분석 전문 자회사 출범**  
한화투자증권은 2일 금융투자업계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모회사인 한화투자증권에서 1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이다.

/\*한화투자증권

# 유산 없는 탈북자 교육



**이지수첩**  
**이범중**  
(정책사회부)

장마를 보름 앞둔 지난달 18일,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중학교를 찾았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과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 감상에 젖던 나의 눈길은 파란 신호등을 따라 학교에서 멀어져갔다.

이날 교장 선생님은 학교 맞은편 상가지하 1층에서 만나자고 했다. 35년간 교편을 잡던 국어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한 첫 날의 암담함. 말 안 듣던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연 이야기. 교사의 서비스 개념에 익숙한 이 시대 어딘가에도 스승은 살아있었다.

스승은 살아있었다. 커피가 식을 무렵, 상가 복도에서 학교 종이 울렸다. 중국어와 북한 말투가 뒤섞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탈북자 대안학교 '한꿈학교' 학생들이다.

상근교사 7명이 26명을 가르치는 이곳 졸업생들은 고려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과 기술직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인간승리'에 가깝다.

김두연 교장은 "2015년 3대 교장에 부임한 뒤, 수업 도중 기절하는 학생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청년들이 종종 쓰러진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하루 세끼 식사를 장려했다.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 밖에 나가 햇볕에 몸을 말린다. 과목 수준별 맞춤 교육도 도입됐다.

그 결과, 결핍하면 쓰러지던 한 학생은 현재 성공관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이 되었다. 학과 3등이라고 한다. 김 교장의 지인 네 명이 역할을 나눠 전화와 외식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기절에 대비하고 있다. 해마다 졸업생은 늘고 있지만, 이 같은 도움을 계속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교 14년째 지하를 못 벗어난 학교의 천장은 누수로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김 교장은 "기숙사는 천장이 썩어 곰팡내가 심하게 살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교장의 배움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중학교 건물을 다시 보았다. 일년내내 장마에 시달리는 탈북자 학생들이 저 학교를 바라보며 등교하고 있다. 장맛비 대북사업 전망에 힘입어 이나라는, 장맛비에 젖은 인재들의 마음을 얻고 있을까.

/\*joker@metroseoul.co.kr

#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 개최

이달 한달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및 사진 출품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8월중 발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 간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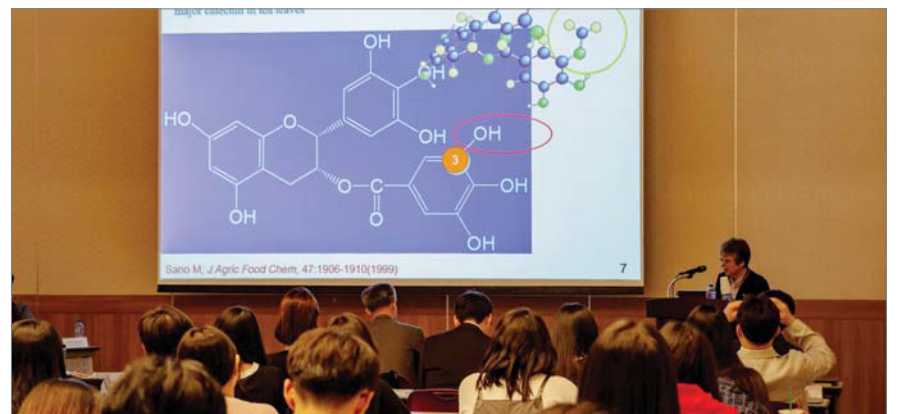
- 인사**
- ◆ **국방부** △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응승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이상욱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문상동
  - ◆ **인사혁신처** △ 국장급 전보 △ 인사관리국장 신영숙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정무설

- ◆ **문화재청** △ 과장급 전보 △ 천연기념물과장 전기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문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전철수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김성도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김한옥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이용석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2급) △ 강은나 △ 고속자 △ 고제이 △ 김대중 △ 김동진 △ 김문길 △ 김현경 △ 류정희 △ 변수정 △ 신정우 △ 이상림 △ 이수형 △ 정해식 △ 황남희
- ◆ **NH투자증권** △ 부장 신규선임 △ 부동산금융2부 김의수 △ 종합금융부 한창구
- ◆ **하나금융투자** △ 부서장 선임 △ 부동산금융실장 박재현 △ 신용리스크관리실장 윤현석
- ◆ **ABL생명** △ 승진 △ 경남지역단장 이경환 △ 강원지역단장 박종명 △ 법무부장 이선영 △ 전보 △ 부산지역단장 이영락
- ◆ **유씨엘** △ 승진 △ 영업부 총괄 상무이사 서정주
- ◆ **한국디자인진흥원** △ 보직임명 △ 전략경영본부장 송현민 △ 감사윤리실장 윤병문 △ 디자인혁신실장 윤성원 △ 전략기획실장 허석 △ 경

- 영지원실장 최기열 △ 인재육성실장 맹은주 △ 선행연구실장 김태안 △ 플랫폼개발실장 이동현 △ 서비스디자인실장 강필현 △ 산업지원실장 손동범 △ 대외협력실장 홍민석

## 부음

- ▲ 유철중(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유영훈(연세대 의대 교수)·유영미(서경대 아동학과 교수)씨 부친상 = 2일,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 영결미사 4일 오전 10시 063-250-1439
- ▲ 김수일씨 별세, 김해구(동양생명 방카슈랑스 본부장)씨 부친상 = 1일 오전 9시 43분,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VIP 201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53-560-7575
- ▲ 허덕조씨 별세, 허진철(금융감독원 팀장)씨 부친상 = 1일,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30분, 031-329-5991
- ▲ 윤기창씨 별세, 윤중진(경북도 행정부지사)씨 부친상 = 1일 오후 10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4-245-0444



# 아모레퍼시픽, 녹차심포지엄 개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한국식품과학회 주최 201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녹차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녹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녹차가 건강에 미치는 우수한 효과를 알리고 최신의 지견을 나누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학계, 기관, 기업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녹차의 우수성,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아모레퍼시픽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3호



# 서울대 4명 중 1명은 특목고... 특기자전형·학종으로 입학

## 고교 유형별 합격자 분석해보니

상위권 10개 대학 17.5% '특목고' 서울대·고려대·중앙대·연세대 순

올해 국내 상위권 10개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6월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별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400명 이상을 보인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10개교였고, 이들 대학의 총 입학자수인 3만8601명의 17.5%인 6755명이 특목고 또는 영재학교 출신이었다.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입학자의 27.1%인 925명

학교	총 입학자	특목고·영재학교		과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기타 특목고		비고 (2017)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3,419	925	27.1	390	11.4	351	10.3	184	5.4	895	26.7
고려대	4,503	827	18.4	175	3.9	647	14.4	5	0.1	785	17.0
중앙대*	5,232	734	14.0	70	1.3	462	8.8	202	3.9	749	14.5
연세대	3,950	710	18.0	179	4.5	457	11.6	74	1.9	807	20.8
이화여대	3,388	708	20.9	30	0.9	363	10.7	315	9.3	748	21.9
한국외대	3,986	674	16.9	2	0.1	668	16.8	4	0.1	586	15.1
성균관대	4,154	599	14.4	110	2.6	432	10.4	57	1.4	681	15.7
경희대	5,688	548	9.6	46	0.8	328	5.8	174	3.1	489	8.9
KAIST	748	515	68.9	512	68.4	3	0.4	0	0	547	74.4
한양대	3,533	515	14.6	75	2.1	287	8.1	153	4.3	449	13.1
합계	38,601	6,755	17.5	1,589	4.1	3,998	10.4	1,168	3	6,736	17.7

기타 특목고는 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맞춤형고. \*중앙대는 제2캠퍼스 안성 포함.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이 입학했다. 이어 고려대 827명(18.4%), 중앙대 734명(14.0%), 연세대 710명(18.0%), 이화여대 708명(20.9%)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400명 이상 배출한 학교 중 서강대는 올해 314명(16.5%)이 입학해 전년 대비 특목고,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111명이나 감소했다. 서강대를 포함해 11개교를 기준으

로 일반고 출신 입학자는 전년 대비 346명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입학자 수 대비 비율로 보면, KAIST가 68.9%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가 27.1%, 이화여대(20.9%), 고려대(18.4%), 연세대(18.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 서울대 등 10개교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이 2만1185명(54.9%)으

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일반고 2만992명(55.2%)와 비교해 193명 소폭 증가했다. 자율고도 올해 10개교 전체 5825명(15.1%)으로 전년도 5808명(15.3%)과 비교해 17명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입학당시 선발 효과에 의해 초·중

등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일부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고려대(54.8%, 0.2%p 증가), 서울대(50.2%, 2.2%p 증가) 성균관대(49.5%, 0.7%p 증가), 연세대(49.4%, 2.1%p 증가), 이화여대(61.1%, 2.9%p 증가), 한국과학기술원(20.5%, 2.1%p 증가) 등은 전년 대비 일반고 출신 입학자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 일반고를 중심으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강세를 보였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대구·부산 광역시 등 교육 특구 출신의 일반고 재수생과 일부 재학생들의 강세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서울시 지역별 고등학교 전체 입학생수)

순위	지역	인원	비율	순위	지역	인원	비율	순위	지역	인원	비율
1	노원구	6,918	9.0	9	관악구	3,199	4.1	17	중랑구	2,090	2.7
2	강남구	5,980	7.8	10	구로구	3,091	4.0	18	동작구	2,084	2.7
3	강서구	5,276	6.8	11	종로구	2,987	3.9	19	용산구	1,980	2.6
4	송파구	4,928	6.4	12	성북구	2,925	3.8	20	영등포구	1,962	2.5
5	은평구	4,309	5.6	13	동대문구	2,438	3.2	21	마포구	1,945	2.5
6	양천구	4,098	5.3	14	중구	2,432	3.2	22	성동구	1,849	2.4
7	강동구	3,659	4.7	15	광진구	2,407	3.1	23	강북구	1,764	2.3
8	서초구	3,395	4.4	16	도봉구	2,230	2.9	24	서대문구	1,750	2.3
				25	금천구	1,440	1.9				

\*단위: 명·% /자료=진학사

## 서울시 고교 입학생 1년 만에 1만명 감소

노원구 1위... 강남구·강서구 뒤이어 '교육특구' 지역 학생 쏠림현상 지속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년 만에 1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가가 밀집한 교육특구의 학생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진학사가 학교알리미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7만7136명으로 지난해 8만7185명 대비 1만499명 줄었다.

지역별 고교 입학생 수는 노원구가 6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5980명, 강서구 5276명, 송파구 4928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순위로 서울에서 학원가가 많은 소위 '교육특구' 지역에 학생 집중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 지역의 경우 학생이 가장 적은 금천구(1440명)보다 무려 4.8배 정도 많았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당 평균 입학생 수는 241명으로 전년도 272명 대비 31명 줄었다. 평균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309명)였고, 이어 동작구(298명), 양천구(293명), 노원구(277명), 강남구(272명) 순이었다.

서초구는 전년도와 올해 모두 평균 입학생 수 1위로, 자율형 사립고인 세화고(388명), 세화여고(387명)를 비롯해 서울고(438명), 상문고(390명) 등 입학생이 많은 고교가 다수 소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의 경우 전년도 평균 입학생

수 4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한 것은, 전기 선발특성화고인 서울공고(502명)의 입학생 수가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기준,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강동구 배재고(465명)였고, 서대문구 명지고(460명), 강남구 휘문고(458명), 양천구 진명여고(457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전년도 입학생 수 상위 10개 일반고 중 자율형 사립고는 휘문고가 유일했지만, 2018년에는 10개 중 7개 고교가 자율형 사립고라는 점이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는 전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이 크게 줄지 않은 반면, 일반고의 경우 모집인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동일한 강남구 내 숙명여고는 전년대비 입학생 수가 62명이 줄었지만, 휘문고는 2명이 주는데 그쳤다.

아울러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미니학교에 입학할 경우, 재선 성적 취득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학생 수가 확보되고,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이 개설된 자사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고교 선택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고교 유형보다 개별 고교 경쟁력이 고입 전형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내신 성적과 직결되는 학생 수 역시, 지원사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 성신여대 첫 직선제 양보경 총장 취임 학생들과 대화로 첫 공식일정 가져

성신여대 첫 직선제로 선출된 양보경 총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수정캠퍼스 수정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총장은 성신여대 개교 이래 8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로 선출돼 지난달 3일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이다.

전임 김호성 총장 취임식과 함께 치러진 이날 양 총장 취임식에는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고철환 상지대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박상임 덕성여대 이사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에서 열린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축하영상을 전달했다.

양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성신 100년을 향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

딈었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와 함께한 4년이 구성원 모두에게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의연히 돌아가는 김호성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열성과 역량을 갖추고 선신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호명된 양보경 총장이 앞으로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진심어린 협력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성신 민주광장 표적 제막식'이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열렸고, 양 총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학생대표 등 60여명의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황문희 교수 뉴욕 카네기홀 피아노독주회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음악과 황문희 교수(사진)가 오는 18일 뉴욕 카네기와일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독주회는 모차르트, 라벨, 빌라로보스 등 20세기 작곡가 작품을 대상으로 독특한 음악어법, 다양한 색채감과 음향적 효과를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또한 피아노 독주회가 듣기 힘들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황 교수는 서정적인 톤과 탄력 넘치는 소리로 호평 받아왔다. 원숙한 음악적 결합을 보여주는 연주로 독주회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협연,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용수 기자

### 상명대 서울 예술강사페스티벌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사업단장 김종희 행정대외부총장)가 2일 오후 서울 대학로 상명아트홀 갤러리에서 '2018년도 서울예술강사페스티벌(Seoul Teaching Artist Festival: STA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부처협력 사업인 2018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지역 7개 분야 예술강사들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로서의 경력에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예술강사들의 개인 창작활동 또는 강사들 간의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가르치는 예술가(Teaching Artist)'의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한용수 기자

### 근로시간 단축 첫날 10곳 중 6곳 '미흡'

2일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 올해 연말까지 제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30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9.6%가 '재직 중인 기업에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해당 기업 재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대비안이 마련됐는지' 묻는 결과, 39.2%가 '준비가 미비하다고' 답했고, 22.9%는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답해 기업 10곳 중 약 6곳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있다'는 응답이 27.1%,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는 10.8%로 총 37.9%의 기업의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www.myhair.co.kr

# 김찬월 연구한 특허가발 착용감이 다릅니다.

접착 · 클립 · 테잎 **NO**

특허 KS가발은 가려움 방지, 탈부착 간편합니다.

정수리 밀지않는  
특허 결속 고정 가발

특수한 재질 사용하여 통풍이 우수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타사가모 고정 가능)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특수한 기술로 뒷부분이 들뜨지 않는 가발!  
항암가발 50% 특별할인

## 김찬월가모 명가명품 기술입니다.



라클라스 부분가모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국내최초  
남녀 부분가모  
작품 전시실



30년 기술의 신지식인 김찬월연구가 자랑스런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선정

1995년 10월 3일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한국 최초 가발관련 방송 출연  
2018년 2월 14일 채널A '김형욱의 굿모닝-알고있나요' 출연

- MBC '화제집중' 출연
- SBS '인생대역전' 출연
- SBS '모닝와이드' 출연
- KBS '뉴스투데이' 출연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출연

- 압구정점 02-545-4800
- 서울역점 02-717-0046
- 서울시청점 02-747-3500
- 대구범어점 053-744-4343
- 대구7호광장점 053-571-6002
- 인천부평점 032-503-5707
- 부산역점 051-467-1300
- 부산서면점 051-802-2882

대표전화 1544-5554





# 농어촌공,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

사회적가치추진단·전담부서 등 신설  
지방조직 격상... 지사 수 93개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가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12개의 지방조직을 지사로 전환·격상하는 한편, 공사의 사회적 가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추진단', 'KRC 개혁위원회', 사장 직할의 '준공점점 전담부서' 등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최규성 사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것이다. 최 사장은 취임 후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기업 가치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국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공사에 따르면 현장 방문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들은 농어촌지역이 고품질



지난달 6월 5일 최규성 사장이 전북 부안 계화 청호지구 배수장을 현장 방문해 농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와 공동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 숙원사업 발굴, 지역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주력사업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공사가 나서서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7월 1일자로 지부로

축소됐던 12개의 지방조직을 지사로 전환·격상시켜 지사 수를 기존 전국 총 81개에서 93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지역공동체가 존속·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공감·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도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국토 균형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 대응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KRC개혁위원회'와 사장 직할의 '준공점점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공사는 농업구조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생산기반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별 생산기반정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논밭겸용이 가능한 농지범용화 시범사업(3개소), 시설작물 등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맑은물공급사업(4개소)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전문 스마트팜단지 조성하고 2020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9430ha를 점진, 친환경, 생태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는 농지를 활용해 사람이 돌아오고 미래가 있는 농촌 만들기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농민의 성장단계별(진입(2ha)→성장(2~6ha)→전업농(6ha 초과)→은퇴농)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올해 농지는 행을 통한 지원면적 1만6000ha의 약 25%인 약4000ha를 2030세대에 지원하고, 경영위기 농가에 예산과 컨설팅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공사본연의 업무가 바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실현이 되도록 조직과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공동체를 존속·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공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해양환경공단이 29일 열린 경영혁신 워크숍에서 신비전 선포식을 진행한 후 구성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공단, 신비전 선포로 새로운 도약

해양환경공단이 새로운 비전 선포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본사 및 소속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해양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공단의 신 비전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으로 청정과 안전의 가치로 이루어진 건강한 바다를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 추구에 기여하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 공단은 이러한 비전 수립을 위

해 일반국민, 고객, 해양관계자,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을 견을 모아왔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관리해역 2등급이상 100% 달성,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65% 이상 달성,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 등의 8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해양가치 보전 ▲안전한 해양가치 구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건강한바다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보령 카약·제주 서핑... 지역별 레저 10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휴가철 맞아 수상·체험형 레포츠 등

'보령의 해양 카약, 제주의 바다서핑, 문경의 권총 사격, 흥천 포레스트어드벤처(숲모험)...'

정부가 지역마다 특화된 레저관광 프로그램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업계의 레저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18년 지역 특화 레저관광 프로그램 10선'을 선정·발표했다.

각 프로그램은 수상 레포츠(카약, 래프팅, 서핑, 카누, 조정 등), 체험형 레포츠(짚라인, 자전거 등)와 지역별 관광명소를 포함한 1박 2일 일정으로 레저와 지역관광을 함께 체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선정지역과 레저프로그램은 ▲충남 보령(용두해수욕장, 해양 카약, 레포츠) ▲강원 흥천(카약·SUP투



흥천에서 즐기는 포레스트어드벤처. /강원 흥천 리더스마케팅커뮤니케이션즈

어, 숲 테라피 트레킹) ▲제주(서핑 강좌, 보드 제작 체험,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드론 체험, 컬링 게임, 서핑, 해변 승마, 산악 ATV, 요트, 바다 래프팅, 카약, 스노클링) ▲경북 문경(짚라인, 레일바이크, 권총 사격) ▲강원 춘천(의암호 자전거, 킹카누, 농촌체험마을) ▲충북 충주(탄금호 자전거, 조정, 짚라인) ▲강원 흥천(가리산자연휴양림 짚라인, 루지, 서바이벌 게임, 포레스트어드벤처) ▲강원 평창(휘트니스 평창

포레스트어드벤처, 짚라인, 워터파크) ▲경북 울릉도(카누, 스노클링) 등이다.

여행프로그램은 2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및 판매여행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카페,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된다. 또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상품 이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해당 상품별 일정과 예약 및 구매 방법은 여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 aT,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 페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성을 강조한 가정간편식(HMR)이 급성장함에 따라 HMR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 HMR 쿠킹&푸드페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간편식! 주방없는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 가정간편식 산업의 우수제품부터 신기술까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HMR상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HMR선진국인 일본의 HMR서밋, 미쯔비시식품, 야오코, 미쯔강와 유럽의 리로이 시푸드를 비롯 국내 CJ, AC닐슨 등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하는 'HMR 월드마켓포럼'을 4일과 5일 개최한다. 이를

통해 HMR상품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통한 기회 창출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우수 HMR제품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편리성, 소용량, 가치소비를 중심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는 HMR시장의 성장세에 견인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중소 농식품기업 발굴·판로확대 기회제공을 통해 농수산물산업의 시장확대와 공익성 추구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송파구 서울동부지사 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서울동부지사를 개소했다. 서울동부지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를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더 편리하고 빠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지역은 중구 소재 서울지사,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지사 등 2개 지사에서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서울동부지사의 개소로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서울 동부권의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가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3일  
음력 : 5월 20일

수도권 날씨  
32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연천 21/31, 동두천 21/32, 가평 21/30, 파주 21/31, 서울 23/32, 양평 22/32, 수원 23/31, 용인 23/31, 평택 23/31, 백령도 19/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최대현안 ‘먹고사는 문제’... 삶 개선에 4년 걸겠다”

3연임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주거·돌봄 등 5개과제 해결 약속  
공공주택비율 10% 이상 만들 것  
전기차 8만대 도입 ‘미세먼지 감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제37대 시장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사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장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의 최대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데 걸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카드수수료 문제 ▲임대차 문제 ▲돌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크게 5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생존에 기로에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까지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서촌에서 일어난 공중폭발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통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시민들은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셨다”며 “서울시 24개 구청장, 102명의 서울시의원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임대차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

는데, 입법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절망을 보여준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익의 필요성이라든지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영속적인 발전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시장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뉴욕 시장이 가진 권한을 왜 서울시장이 가질 수 없느냐고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나. 이 명확한 진실, 핵심 문제를 왜 피해 가나. 이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자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에 교통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경보 후에 조치하면 소용없다고 비판하던데.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행 친화 도시나 자전거 도시 조성,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함께 해왔다. 차량 강제 2부제, 차량 환경등급제 등은 비상저감조치로 계획된 거다. 향후 4년 안에 전기차 8만대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13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대기질개선협의체를 구성,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업계 반발, 법 개정 등 걸림돌이 많은 데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 앞으로의 로드맵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적인 아젠다로 확대된 상태다. 중국에는 알리페이도 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1000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넘어 유니온 시티를 구상한다고 하던데.

1800만에 이르는 전국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경력단절녀가 생겨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법에 있는 걸 사실상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

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이를 지방 노동청을 통해 실행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한 내용이다.

시가 노동행정권한을 이양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노동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이양법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넓은 고가, 보행자길 만들어 상권 살린다

‘서울로 7017’ 개장 후 상권 활성화  
서촌 등 2020년 ‘보행특별시’ 계획

서울역 인근 넓은 고가를 보행자길로 탈바꿈시킨 동네에 상권이 확대되고 매출이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서촌, 을지로부터 2020년 북촌, 광화문 등에 이 같은 도시재생 공원을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넓은 고가를 보행자 전용길로 바꾼 ‘서울로7017’과 그 일대를 보행특구로 지정한 이후 실제 보행량이 늘고 상권이 살아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서울로7017’ 보행특구는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17개의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다’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역 옛 고가도로 구역을 포함 만리동, 회현동 일대 1.7km<sup>2</sup>의 공간을 의미한다.

시가 발표한 서울로7017 보행특구의

지난 1년 간 보행량·상권변화·이용자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로 7017 개장 후 지난해 9월 보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계절(겨울)적 영향으로 지난 1월엔 보행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평균 보행량은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행특구 내 유동인구도 개장시점 대비 6.6% (2017년 9월 기준), 2016년 동월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40%라는 소매상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보행특구 내 업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카드매출액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증가는 가로 활성화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행인구 증가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서울로7017 이용 시민 680명을 대상으로 경관, 편의성, 관광 등의 측면에서 보행특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주요 가로 17개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가로 성격을 고려해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보행특구 내부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5개 지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해 ▲서촌 ▲을지로를 시작으로 2019년 ▲명동 ▲장충 ▲혜화, 2020년 ▲북촌 ▲정동 ▲무교 ▲광화문까지 녹색진흥지역(16.7km<sup>2</sup>)으로 지정된 도심부 전역으로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부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우회할 필요 없는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 확충 등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여 보행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한글학교 선생님들 ‘한자리예’ 전 세계 한글 학교 선생님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을 알리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받아요”

27일까지 후보자 추천·접수

서울시가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총 거주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 방문 주요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귀감이 되는 사

회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장 혹은 30인 이상 시민이라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자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추천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

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밖에도 서울대공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자체 기획전)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에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시설로는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 환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태양광 펀드’ 수익 9.6억 시민에 공유

매출액 36억... 연평균 이자 4.18%

전국 최초 시민공모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를 모집했던 서울시의 ‘제 1호 태양광 펀드’가 3일로 가입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완료했다. 3년 동안 시는 이 투자금으로 가동시킨 4곳의 발전소에서 매출액 36억원을 올리면서,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에게 수익을 공유했다. 분배한 이자비용은 약 9억 6000만원으로 총 매출액 27% 규모다.

서울시는 ‘제 1호 태양광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으며 모집금액은 총 82억5000만원이다. 모집 당시 시민참여 의미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투자금은 지족·개화·도봉·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에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로 전액 사용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3년간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했다.



고덕차량기지 태양광발전소. /서울시





[산업] 현대기아차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량 증가로 함박웃음 05



Life

[유통] 신세계·롯데백화점 편집숍 사업 확장 11



# 카드 포인트 쌓아 기부하면 기부금·행복 두배... 롯데카드의 이웃 향한 '따뜻한 바람' 러브팩토리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⑦ 롯데카드

사랑·나눔·공감 발전소 슬로건으로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 팩토리' 운영

카드 사용액 0.1% 소아암 어린이 후원 포인트 매칭기부로 빈곤가정·장애아 지원

롯데카드는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 팩토리(Love Factory)'를 모토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랑·나눔·공감 발전소'라는 슬로건으로 구현된 러브팩토리.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느낌과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고자 하는 롯데카드의 사회공헌 철학을 담았다.

#### ◆ 러브팩토리로 소아암센터 운영

롯데카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러브팩토리 봉사단은 매달 나눔소아암센터와 아동보육시설 해심원, 남산원 등을 방문해 아이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쌓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눔소아암센터와 함께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초청해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롯데카드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 입장권 전액을 후원하고 간식과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눔소아암센터는 '롯데 아이러브부산카드' 사용액의 0.1%를 적립한 기금과 롯데카드의 지원으로 2014년에 건립됐다.

부산 나눔소아암센터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재단 건립 이후에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롯데카드 임직원 사회공헌기금과 헌혈증을 매년 기부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은 롯데카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매월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한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과 회사도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에는 임직원 사회공헌기금 1977만원과 헌혈증 309매를 기증했으며 누적 후원금은 약 6098만원에 이른다.

또한, 롯데카드는 정기적으로 아동보육시설 해심원과 남산원을 방문해 아동들과 교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 롯데카드는 해심원을 방문해 해심원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청소년과 아동 학습지도도 했으며, 남산원 어린이들과



롯데카드 임직원들이 헌혈증을 기부하기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지난 5월 러브팩토리 봉사단(롯데카드 임직원)이 해심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롯데카드 러브팩토리 홈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를 방문해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금껏 해오는 활동은 물론 앞으로도 롯데카드 사회공헌활동 '러브팩토리'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기부

롯데카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기부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 매칭기부는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 만큼 롯데카드가 고객이름으로 한 번 더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기부된 포인트는 굿네이버스와 어린이재단을 통해 빈곤가정 아동 지원과 전자동 휠체어 구입, 재활치료비 등 환자 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캠페인은 롯데카드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후원하고자 하는 매칭 기부 사례 아동을 선택한 후, 원하는 금액만큼 포인트를 기부하면 된다.

롯데카드의 매칭기부 캠페인은 2013년 8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참여해 약 1억 8000만원이 모금돼 빈곤가정 아동과 중증 장애 아동 지원에 사용됐다.

#### ◆ 사회 약자 이웃위한 후원

롯데카드는 지역사회와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연말 서울 용산구 일대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탄 1만장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롯데카드 회원 등 30여명은 연탄사용 가구를 방문해 롯데카드가 기부한 연탄 1만장 중 1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문화 후원의 일환으로 2011년 지적 장애인 골프단 후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에는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지적 장애인 골프단을 위해 연습시설을 완공해 기증했다. 매년 '롯데카드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통한 수익금과 수익금 만큼 매칭된 금액을 롯데카드에서 추가 기부해 지적 장애인 골프단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카드는 프라이빗 콘서트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기금을 기부해 왔다. 지난해 롯데카드는 프라이빗 콘서트 '야니크 네제 세갱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콘서트 입장권 판매 수익금 1000만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바 있다. 전달된 금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사용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부 후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서울 용산구에서 롯데카드회원들과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초청해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롯데카드

